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a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일간) No. 551 1981년6월27일(토) Saturday, June 27. 1981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 : (416) 533-236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 (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3 1981

追眞 더해 가는 毛沢東 최후審判劇

黨·軍 알력속에 열린 中共6中全會-그 歸趨는…

작년 12월이래 미루어오던 中共黨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회 전회(六中全會)가 열리고있다. 六中全會는 당주석 華國鋒의 사임을 에워싼 당수뇌 人事, 기구개혁, 헌법개정,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등을 결정하는 「毛澤東이후 中共」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것이다. 특히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는 毛澤東과 文化大革命에 대한 당의 공식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것인지 주목을 끌고있다.

◇최후심판을 받고 있는 毛澤東。

文革派와 부활派의 政權다툼으로 表面化
妥協이루어져도 兩派 對立해소 어려울듯

□한겹 한겹 내리깎아

毛澤東이나 文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토의는 中共당지도부내의 「文革그룹」과 「부활간부그룹」의 주도권싸움과 얽혀 78년 여름께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文革그룹」의 중심인물인 華國鋒이 毛澤東의 정통후계자로 毛의 카리스마적 위신을 배경으로 정치기반을 굳혀 中共의 근대화에 착수하려고 한데 대하여 鄧小平등 「부활간부그룹」이 毛澤東과 文革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文革그룹」에 도전한 것이다.

文革당시 毛澤東에 비판당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찬밥」을 먹게 되었던 「부활간부그룹」의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毛澤東과 文革을 中共현대사 가운데에 어떻게 자리잡게 할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냉정한 毛澤東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말았다. 鄧小平등은 78년12월의 제3회 중앙위전체회의의 코뮈니케에 『毛澤東도 과오를 범할수 있다』는 한 귀절을 삽입하여 毛비판에 돌파구를 연것을 빌어 더욱 毛澤東, 文革비판을 강화하면서 華國鋒과 「文革그룹」의 정치기반을 한걸음 한걸음 깎아내려 갔다.

鄧小平등은 이리하여 작년2월의 제5회 중앙위전체회의에서 우선 汪東興당부주석, 紀登奎, 吳德, 陳錫聯정치국위원을 정치국에서 추방하여 華國鋒을 고립시키자 동년9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수상의 직책을 빼앗고 이어서 같은해 12월말의 정치국확대회의에서 華國鋒으로부터 당주석 사임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毛澤東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다루는 것으로는 강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정통후계자라는 것을 「마이너스의 유산」으로 바꾸어버리는 鄧小平의 교묘한 전술이 주효한 것이다.

□反對勢力 적잖아

華國鋒등 「文革그룹」이 패퇴함과 함께 毛澤東비판이 두드러지게 온건해진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 가을께부터 『毛澤東의 과오를 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궁하라』는 따위의 강경의견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文革에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던 胡耀邦당주석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리하여 『毛澤東은 공적면이 잘못보다 더 크다』는 아주 온건한 毛평가가 차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華國鋒이외에도 葉劍英등 원로그룹이나 毛澤東의 직계인 中共군부에는 毛澤東지지자가 적지않기때문에 이러한 세력이 鄧小平등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다. 후계자인 華國鋒을 주석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鄧小平의 실력행사나 좌파비판에 반발하여 反鄧색채를 짙게 하고있다. 중앙위전체회의가 6개월이나 늦은것도 그때문이라고 말하여지기때문에 六中전체회의에서 일단 타협이 꾀해지더라도 毛澤東이나 文革을 에워싼 대립이 간단하게 해소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毛澤東을 신봉하는 中共군가운데에는 鄧小平등 주류파가 추진하는 毛澤東재평가에 위화감과 반감을 품은 수뇌, 간부가 적지않다. 또 이뿐 아니라 鄧小平등이 추진하는 근대화정책에 관해 군부층은 몇가지점에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우선 中共軍은 戰鬪隊일 뿐아니라 政治工作隊이기도 하다는 군의 개편계획, 국방비의 대폭삭감과 함께 1백30만명에 이르는 兵員삭감계획은 군간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립기반자체를 흔들어 놓는움직임으로 비쳐질것에 틀림없다.

작년 초하루에 열린 新年 茶話會는 당중앙주최에도 불구하고 華國鋒이 결석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실상은 中共軍의 원로인 葉劍英(遼寧으로 廣東체재) 徐向前, 聶榮臻등 세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中共軍 수뇌의 당중앙에의 불만,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류파에의 반대, 저항이라는 점에서 華國鋒과 이들 군 원로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中共에서의 黨과 軍의 알력은 꼬리를 물고 갈것같다는 것이 北京 외교가의 전망이다. 【[illegible]】

◇鄧小平

◇華國鋒

◇葉劍英

	毛澤東 비판	文革평가
王若水 (「人民日報」부편집장) (79년2월)	①毛澤東은 오만해져 군신을 저버리고 비판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②毛澤東은 개인숭배를 장려했다. ③당과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빠져있는데 古書에 읽어 詩作에 몰두하고 있었다. ④周총리의 추도회에 출석하지않고 애도하나 조사도 쓰지않고 슬픔이나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①그릇된 방법으로 그릇된 대상에 대하여 행해진 그릇된 혁명. ②文革은 경제, 정치, 문화의 어느면으로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하지 않았어야 했다.
葉劍英 (당 부주석) (79년9월)	①毛澤東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과의 결합의 소산이다. ②毛澤東은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 위대한 혁명가, 전략가이다. ③毛澤東사상은 毛澤東 혼자의 지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집단적인 지혜의 결정이다.	①수정주의에 반대하여 수정주의를 방지하는 것이 文革의 목적이었다. ②문제는 文革을 일으킨 당시, 당내와 국내정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수정주의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지않고 투쟁방침과 방법을 그르친 점이다.
政府高官 (80년7월)	①毛澤東의 과오는 반우파투쟁, 대약진, 인민공사화, 文革, 「4인조」와의 관계등 57년이후 20년에 걸친다. ②毛澤東은 일부 선진단위에서 성공한 公社化를 현지조건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강요하고 큰 손해를 가져왔다.	①이제는 文化大革命이라는 호칭조차 문제이고 葉劍英의 文革비판은 아주 불철저하다.
華國鋒 (당 주석) (80년7월)	①毛澤東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②혁명이론, 혁명사업에의 공헌도로 보아서 그를 웃도는 지도자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고 神이 아니기 때문에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③당주석인 毛澤東은 당의 과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①58년이후부터 文革에 걸쳐 우리 활동에는 상당한 편향이 생겼다. 그것은 경제활동에 공을 너무 서두른것, 일부문에서 계급투쟁 확대화의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하면 당노선은 옳았다. ②文革 10년간에 당은 가슴아픈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廖蓋隆 (당 중앙정책연구실연구원) (80년10월)	①毛澤東의 일생에서는 의심없이 공적이 잘못보다 크다. 그의 공적은 첫째이고 잘못은 둘째이다. ②毛澤東이 林彪와 「4인조」를 重用한 것은 잘못이었다. ③毛澤東이 저지른 잘못은 좋은 인간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林彪나 「4인조」의 경우와는 다르다.	①文革의 본질과 주요면은 잘못이고 災厄이고 암흑이었다. 그러나 文革 10년에도 밝은 면은 있다. 이 10년간에 毛澤東은 전당과 전국인민을 지도하고 광범한 국제통일전선의 수립을 주장하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혁명과 평화의 외교노선을 기본적으로 견지했다.
鄧小平 (당 부주석) (80년12월)	①毛澤東에 대해서는 그의 공적이 첫째이고 잘못은 둘째의 것이다. ②실천에 의해 옳은것이 증명된 毛澤東사상은 굳게 지켜지고 발전되어야하지만 毛澤東이 만년에 저지른 몇가지 중대한 과오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고 시정되어야 한다.	①文革은 중대한 잘못이었지만 반혁명이었다는니 말해서는 안된다. ②文革의 목적은 중국에 자본주의를 부활시키지 않기 위해서였고, 동기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중공의 현실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바탕을 두고 文革을 일으킨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상8월)

뉴스·안테나

國內

南北國力 5배이상 差異
6·25 31돌…北傀 전쟁준비만

올해로 민족상잔의 6·25가 발발한지 31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南北이 걸어온 길, 그것은 격변 그것이었다. 南韓이 자유와 번영을 구가한 지난날이었다면 北韓의 그것은 압제와 군비증강이란 채찍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지금 그들은 父位子承의 세습통치까지 서슴지않는 共産主義체제, 그리고 統制經濟의 가장 표본적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金日成은 이미 73년말 金正日을 당조직및 선전·선동담당서기로 기용, 「後繼工作」을 벌여오다 작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는 金正日을 당의 최고권력부서인 政治局상무위원으로 지명한바 있다.

또 黨비서국의 秘書·당군사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黨과 軍部를 장악하게 하는등 권력의 핵심적지위를 모두 겸임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王朝體制의 등장으로 대외적으로는 계속 강경노선을 추구해가고 대내적으로는 주민통제및 공포정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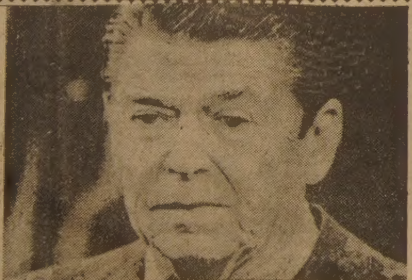
韓國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의식한 北韓은 자력갱생을 위한 10大展望 目標를 내세웠으나 생산시설의 노후화, 기술수준의 낙후, 인력및 재원부족, 상업자의 불합리, 군대,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의욕 저하등으로 계획 첫해(81년)부터 難關에 부딪치고 있다.

南北韓의 國力의 격차를 보면 자명해 진다. 지난 79년을 기준으로 볼때 GNP는 우리나라의 6백10억달러에 비해 北韓은 1백25억달러에 불과, 4·9대1의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GNP도 우리의 1천6백24달러에 비해 그들은 7백19달러 수준으로 우리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같이 南北韓國力면에서 5배이상 뒤떨어지고있는 北韓은 그동안 군비증강에 열을 올려 군사비부담이 우리의 GNP 6%에 비해 14·7%인 17억달러(8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사비를 흔히 항목에 은닉시키는 共産國家들의 만행을 감안하면 81년의 실질 군사비는 약 34억달러수준에 달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처럼 北韓이 주민들의 극심한 民生…

海外

"세계共産主義 終末시작"
레이건 記者會見서 闡明



◇레이건美대통령이 피격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레이건美 대통령은 16일 지난3월30일 피격이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산주의는 인류의 정상적인 생활방식이 아닌 하나의 탈선』이며 폴란드및 蘇聯의 사태진전으로 미루어 세계공산주의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사태를 지적,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국민들의 자유를 영원히 거부할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붕괴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국에 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최근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 폭격은 美國의 대외무기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방위적조처로 믿고 단행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옹호했다.

기자들과 1문1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그는 또 中共에 美製무기를 판매키로한 자신의 결정은 美·中共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부이나 蘇聯이 이에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臺灣에 대한 우호적감정을 바꾸지 않았으며 美國으로 하여금 臺灣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토록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臺灣관계법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中共을 방문중인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北京에서 만약 中共측이 원한다면 美國은 中共에 기꺼이 무기를 판매할것이라고 발표한지 불과 몇시간 뒤에 나온것이다.

그는 이날 오는84년 2차임기를 위해 또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의 행정부는 蘇聯과의 핵무기제한협상 再開를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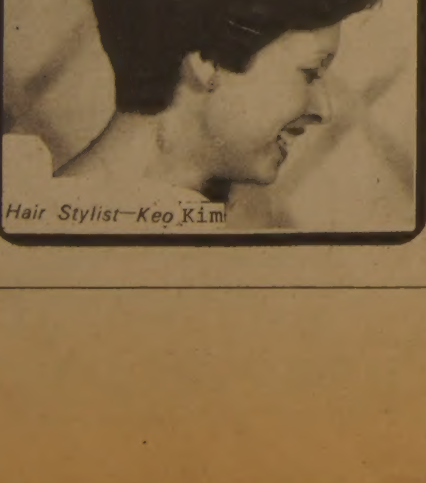
레이건대통령은 국내문제에 대해 의회는 세금감면및 연방예산삭감계획을 오는8월 휴회이전에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下院民主黨의원들은 예산감축노력을 저지시킴으로써 연방예산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 취임후 가장 직접적인 의회공격을 가했다.

꿈을 외면한채 군비증강에만 광분하는것은 對南武力赤化통일이란 망상때문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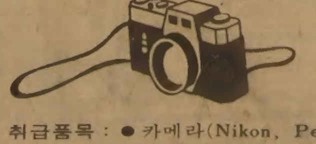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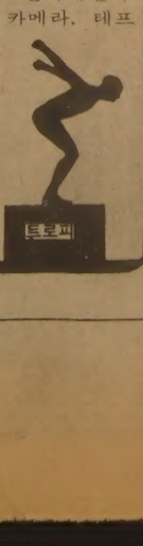
◇6·25이후 31년, 北傀는 오로지 南侵야욕으로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왔다。

뉴스·안테나

아 세 아
건 재 약 방
선 물 센 타
거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BIG SEVEN TRADING CO.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 530-0522. 3
조지섭 · 김영철

스타☆미용실
파마 스페샬 세일: $28.00
(기간 : 7월말까지)
예약 : 741-4410
시간 : 아침9시~오후8시
휴업 : 매주 일, 월요일
주소 : 2437 FINCH AVE. WESTON, ONT. (Finch & Weston)

Hair Stylist—Keo Kim

PIONEER
CAR+HOME STEREO
각종 STEREO SYTEM.
Pioneer, Sharp, Hitachi,
$499~$3,000 이상의 고급품.
Receiver, Tapedeck, Turntable, Audio Stand
각종의 스피커를 구비하고 있음.
카 스테레오, 각종 고급 카 스피커 취급함.
그외 고급 Cassette tape
야외용 Portable, Stereo도 구비하고 있읍니다.
HI-FI HOUSE
영업시간 : 10시-9시 ☎ : 633-2332
토 요 일 : 10시-6시
4544 DUFFERIN ST. UNIT 6
(휜치×더프린)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 카메라(Nikon, Pentax, Yashica등) ● Movie카메라 일체 ● 각종렌즈 ● 라디오, 망원경, 트리포트 영사기, 환등기, Flash ● 전자계산기 ● Vedeo Set, 카메라, 테프 전축바늘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트로피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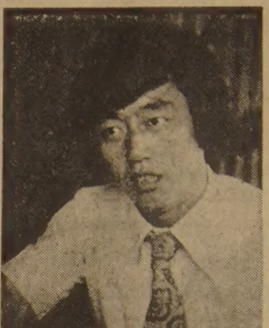
MS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伝道師가 된 前科16犯「딱부리」

殺人과 暴力, 소매치기단 조직등, 세상에서 가장 可憎스러운 犯罪만을 일삼던 前科 16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傳道師가 되어 세상에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처럼 惡의 소굴에서 생활하다 鐵窓신세가 돼 복역중인 전국의 罪囚들을 찾아 福音전파에 땀을 흘리고 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金泰成씨(29)—. 지난날 暗黑街에선 「딱부리」라는 惡名을 흩날리던 바로 그 사나이다.

★[illegible] 참조

服役囚찾아 福音전파…金泰成씨



◇전도사가된 전과16범의 金泰成씨. 수많은 전과자가 예수를 믿고 새사람이 되도록 하는게 꿈이라는 그는 모든 교회가 각각 한사람씩의 전과자들을 보호해준다면 밝은 사회는 절로 올것이라고 말한다.

■엠마오 특수선교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가운데서도 가장 냄새가 고약한 인간 쓰레기는 바로 여기 서있는 金泰成이, 이사람입니다. 그러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냄새가 지독한 그 쓰레기 인생이 덜 고약한 여러분을 설교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참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다. 金泰成전도사. 전국의 교도소를 찾아 예수의 진리를 설파하는 기능의 「엠마오 특수선교회」 담임이다.

현재 대한신학교 2년에 재학중인 그가 지금 옛 교도소 동료들인 복역수들을 앞에 놓고 열띤 설교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속삭이듯, 때로는 성난 사자같은 그의 사자후에 그토록 매몰차다는 복역수들의 얼굴이 창백할이만큼 숙연해진다.

그 표정은 어쩌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무서운 선생님의 훈화를 듣고있는 모습과도 흡사하다.

그는 또 외친다.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필경 여러분은 감옥소생활로 평생을 마치게 될것입니다. 여기 서있는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감옥에 가기위해 태어난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의 설교가 이처럼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겉만 번지르르한 미사여구나 나열하는 따위의 도식적인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이 살인죄와 폭력죄를 저질렀던, 그러면서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저들 복역수들에게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78년3월 金씨는 자신의 자취방을 근거지로 지금의 엠마오특수선교회를 만들었다.

구성원은 같은 출소자 19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金씨 곁을 떠나갔다. 예처럼 눈 한번 부라리면 돈이 굴러들어오던 호화 건달생활이 아닌 구두닦이로 입에 풀칠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야하는 생활이 그리 쉬울 까닭이 없었다.

■「구두닦이」전도사

金씨는 서글펐다. 『아무리 굶주림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저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런 그들이 안이한 옛 타성을 끝내 못버리고 떠나고 말다니…』

2명의 出所者와 함께 自炊房을 선교회 사무실 삼고

구두닦이 神大生으로 全國교도소돌며 說教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면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쓸 인간에게는 더 큰 시련으로 시험해 보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金씨는 굶기를 다반사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30만원짜리 자취방에서 두명의 출소자와 함께 기거하고있는 그는 하루에

면서도 반드시 갖춰야할 교재는 물론 집세를 못내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세사람의 장정이 구두닦이를 하면 그게 뭐 그리 어려운가고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세사람 모두 당장의 먹고 자는 일에 앞서 전도의 사명에 지나칠이만큼 충실한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게 마련이고, 또 전도사업을 하려해도 차비가 있어야 하므로 틈나는대로 구두통을 엎러메고 골목을 누비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한 장소가 없이 떠돌이로 구두를 닦는 수입이 시원할 리가 만무다.

게다가 金씨와 다른 동료 한사람도 같은 신학대학(1학년)생이니 씀씀이가 보통은 넘게 마련.

『집회에 다니다가 보면 가끔 쌀밥대접을 받곤합니다. 물론 그건 저 혼자만의 경우입니다만—.』

그러니 라면이 주식이 되고, 아니면 다른 국수류가 끼니의 모두인 이들은 쌀밥대접을 받는 金씨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지난4개월간 쌀 한톨 구경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세사람 모두 버스속 전도 도중 그만 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는 몇차례 소동을 빚었던 사례는 이들의 어려움이 어떤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입가에선 항상 감사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고급승용차에 말의 성찬을 빼놓고 다니면서 자칭 성자연하는 일부 위선적 성직자의 행태와는 너무도 다른 담박·소박한 신앙인의 자세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國校 6년때 先生때려 退學당하고 家出해 깡패世界 투신

背信女 살해·教會방화 自首하고 10년刑

■왕십리 깡패로

金씨의 오늘이 놀라운것은 지난날의 그가 악의 화신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유당시절 모 정부요직(국장)에 있었던 金勝吉씨(70)의 11남매중 아홉째로 태어난 그는 서울마장동에 있는 동명국민학교를 다녔다. 성격이 거칠면서도 참지 못하는 그에게 운명의 시기가 닥친 것은 졸업을 불과 얼마 안남긴 6학년말기였다. 어느날 그는 담임선생을 [illegible] 저질렀다. 자신은 분명 숙제를 해갔는데도 담임은 이를 믿으려 하지않고 마구 때리는데 화가 치밀었던 것. 아뭏든 이 일로 그는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형님의 징벌이 두려웠던 그는 그 길로 무단가출을 했다. 그래서 간 곳이 釜山市西面3백번지 창녀촌이었다. 이 일대에서 그는 구두닦이를 하면서 전전하다 자신을 찾는 어머니의 신문광고를 보고는 서울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일단 비뚤어지기 시작한 그의 품성은 어쩔수 없었다. 14세때였다. 당시 그도 [illegible] 세계에서는 이미 왕십리지역의 패권을 잡기 시작한 그는 코스모스 음악실의 지배인이 되었다. 건달들 세계에서 딱 부러지게 일을 처리한다해서 딱부리란 별명이 붙었고, 잔인하고 무서움을 모르는 것으로 통한 그가 깡패조직인 一興黨을 조직한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동안 그는 이미 공갈과 폭행등 혐의로 여러 차례 소년원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자신이 [illegible] 살인사건이 그것이었다. 그녀는 미인선발대회에도 나갔을만큼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는데 그만 배신을 당해 분한 나머지 살해하고 만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신에게 예수를 믿도록 권장하는 왕십리 홍일교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다.

그 당시 그에게는 예수를 믿으라는 교회목사의 타이름이 그토록 미울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른 불이었다.

이 화재로 자신의 어머니의 친구이자 교회 집사이기도 한 한 할머니가 크게 화상을 입기도 했다.

■山속으로 줄행랑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만 金씨는 어쩔수 없이 강원도로 튀었다. 무턱대고 간 곳이 어느 첩첩산중이었다. 여기서 그는 칡뿌리를 캐 먹거나, 개구리를 잡아 허기를 채웠다. 얼마를 산속에서 지냈던 그는 갖은 수단을 다해 釜山으로 내려가 밀항선을 타는데 성공했다. 일본에의 밀항을 시도한것이다. 그러나 일본도착 24일만에 그는 끝내 이 일을 단념하고 귀국, 경찰에 자수를 했다. 불안하기도 하려니와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싶어 견딜수가 없었다.

살인과 방화등 죄목으로 법정에 선 그는 그러나 그동안의 정상을 참작, 10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4년8개월을 복역[illegible]했을 무렵 모범수로 가석방된 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역시 전과자인 그에게는 [illegible]. 냉대와 멸시를 견디지 못한 그는 다시 건달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模範囚로 가석방…社會냉대에 환멸, 다시 明洞깡패 生活

75년 初엔 全國소매치기團 두목 노릇까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는 이웃과 사회에의 반발은 무분별한 폭력으로 솟구쳤다. 이때부터 그는 서울明洞을 자신의 세력처로 삼았다. 자연 그의 이름은 「明洞딱부리」로 통했고, [illegible] 세력판도를 형성했다. [illegible] 사보이호텔등의 도끼사건에 그가 깊숙이 개입돼 있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마침내 그는 명동파의 실장이랄수 있는 중앙극장의 「기도」가 되었다. 그 외에도 명동에 있는 14개의 튀김집, 28개의 양품점, 2개의 중국집, 2개의 여관, 2개소의 다방 그리고 백화점 1개소등이 그의 관할에 들어왔다.

물론 이들의 배후에는 金씨가 거느리는 폭력단체가 보호벽 구실을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동안에도 그는 무수히 교도소문을 드나들고 있었다.

75년초였다. 마침내 그는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의 소매치기단을 조직했다. 명실상부한 암흑가의 두목이 된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의 허락없이는 소매치기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을수 없었다. 그만큼 그의 힘은 막강한 것이었다. 최근 법원에서 탈출극을 벌여 물의를 빚었던 소매치기계 大物 盧隆相도 金씨의 부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소매치기 자수기간이 설정되면서 그는 부하 21명과 함께 검찰에 자수, 정상을 참작받아 풀려났다. 자유의 몸이 된 그가 갈 곳은 역시 다방이나 살롱등의 지배인이 고작이었다. 생태적으로 폭력과 비리가 횡행하는 어둠 세계에서 그의 주먹이 조용히 잠잘리 만무했다. 행여나 기대했던 사회의 천시는 여전했고 심지어 사회 단체마저도 사랑은 말 뿐으로 전과자에 대한 냉대는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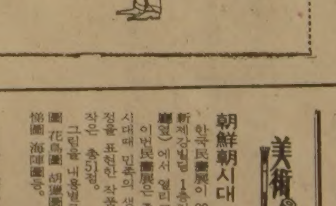
◇『주 예수를 믿으라!』 서울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惡名의 「딱부리」가 전도사 金泰成으로 변화됐다. 그리고 그는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예수 믿기를 권고하며 다닌다.

■식칼로 自殺劇

78년 그는 다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는 몸이 되었다. 물론 폭력혐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이 심하게 다루자 맞을어 그를 구타하고 말았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공무집행방해라가 추가로 성립됐고, 법정에 선 그에게는 징역5년이 구형됐다.

『정당방위로 생각한 행위에 대한 응보치고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그는 유례없는 「법정통벼락」소동을 벌였다.

이 행위로 그의 형량은 1년6월이 다시 추가되고 말았다. 그래서 간 안양교도소였던것이다. 극도로 화가 난 그는 이번엔 교도소내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닥치는대로 때리고 부쉈다.



어 소식을 전해들은 金씨의 어머니는 어느 날 심장마비를 일으켜 운명하고 말았다.

이맘때쯤 그는 안양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돼 있었다.

당시 의정부교도소장은 李正贊 현仁川소년교도소장이었다. 李소장은 학자풍의 베담임목사이기도했다. 그런 李목사의 간절한 기도와 설교가 그를 놓칠리 만무였다. 하지만 그의 전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金씨의 심성은 더욱 사나와지기만 했다.

『내 감방에는 어떤 예수장이도 출입을 시키지말라!』

극도의 증오와 저주를 사회와 교회에 퍼붓고 있었던 金씨에게 그같은 행위는 어쩔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警官구타·法廷 ×벼락·矯導所 난동등 마구 行悖부려

母親운명·牧師설교로 하나님 믿고 새사람

그는 李목사에게 이렇게도 항변했다. 『새 사람은 되겠다. 그러나 나를 억울하게 만든 꼭 한 놈을 처치한후 그렇게 할것이다—』

그 사람이란 바로 자신을 마지막으로 교도소로 보냈다고 생각한 어느 경찰관이었다. 그러나 그 해 9월 교도소에서 출감한 金씨의 마음은 달라졌다.

『그도 남들처럼 처자가 있을것 아닌가—』 스스로 마음을 달랜 그는 이번엔 그 분을 자살로써 풀려했다. 신당동 중앙시장의 고가도로위에 올라간 그는 미리 준비한 생선회용 식칼로 자신의 온몸을 마구 난자한 것이다. 2시간동안 교통이 두절되는 대혼잡이 야기됐으나 그의 자살극은 미수로 그쳤다. 이때 그의 몸은 4백68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고 있었다.

■38일간 禁食祈禱

몸이 회복되면서 그는 의정부교도소 시절 미국인 겔전 전도사가 자신의 생일인 7월29일에 보낸 생일카드에 다시 생각을 미쳐 갔다.

그 내용은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이었다. 동시에 李正贊목사의 이사야서 1장28절의 『보라, 예전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고 한 성경말씀을 되뇌 수 있었다.

金씨는 비로소 사나이의 참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유치장속에서 그는 천장을 치고 땅을 치면서 지난날의 자신을 꾸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주여, 나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다니…』

이런 그를 본 각계인사들의 탄원이 효력을 보아 金씨는 29일간의 경범처벌만을 받은채 사직당국의 손에서 풀려 나올수 있었다.

『진홍처럼 붉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산중에서의 금식기도부터 갖자』고 생각한 金씨는 서울근교의 산속으로 들어갔다.

40일간의 기도예정일 가운데 38일 째되는 날이었다.

『네 죄는 이제 사함을 받았으니 내려가 너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하산한 그에게 평소 그를 눈여겨 보아온 최순직목사가 다가왔다.

『金선생, 신학대학에 안가겠소?』 뛸듯이 기뻐하는 그를 崔목사는 신학대학장 김세창박사에게 소개했다. 물론 소정의 시험은 치러야했다.

교도소시절 열심히 공부해둔 기본적인 실력에 힘입은 金씨는 끝내 신학대학생이 되는 벅찬 감회를 안았다.

그리하여 전도사가 된 그를 사람들은 지금 「도라이 전도사」라 부른다. 어찌나 열심으로 전도하는지 마치 돈 사람같다는 비유에서다.

지난해 겨울 그는 자신이 구두닦이를 해서 마련한 여비로 전국 31개교도소를 찾아 그들을 전도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자신의 처지로써 간증을 했다. 물론 이 일은 오늘도 꾸준히 계속되고있다.

『한 교회가 한 사람씩의 전과자만이라도 보호해 주었으면…』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리란 그의 간절한 소망이 깊게 여울진다. <鄭成万기자>

해외 걸작 만화

어느 조각가의 자화상

스트립 쇼

美術

美순회 한국美術5천년전 내달15일 워싱턴서 最終展

미국을 순회전시중인 「한국미술5千年展」이 지난 14일 캔자스 시티에서 전시를 끝내고 오는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워싱턴市 스미드소니언 自然史박물관에서 미국에서의 마지막전시를 장식하게된다.

지난 4월1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 캔자스 시티展示會에는 총 6만9천5백명이 관람, 지금까지 미국 7개도시에서 전시중 관람객이 1백만을 돌파, 1백5만2천6백38명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웠다.

문공부에 의하면 ▲지난79년 5월부터 전시된 샌프란시스코展에는 54만7천1백59명 ▲시애틀展에는 5만7천8백74명 ▲시카고展에는 10만7천8백39명 ▲클리블랜드展에는 4만4천4백30명 ▲보스턴展에는 9만1백95명 ▲뉴욕展에는 13만7천6백41명이 각각 관람한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한국美術5千年展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민족예술의 향기와 착상이 매우 짙어 무형의 정감을 느끼게한다』는 평을 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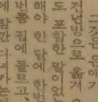
朝鮮朝시대 民畫展

한국民畫展이 29일까지 日新제강빌딩 1층강당(鍾路區[illegible])에서 열리고있다.

이번民畫展은 주로 朝鮮朝시대때 민족의 생활의식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로 전시작은 총51점.

그림을 내용별로보면 蓮花圖 花鳥圖 胡蝶圖 册架圖 孝悌圖 海陣圖등.

서예가 李成祚씨 뉴욕·LA서 개인전



국제외교협의회는 내년으로 1백주년을 맞는 韓美修交1백주년을 기념, 서예가 南石 李成祚씨(사진)의 서예전을 한국일보社주관으로 미국에서 개최한다.

전시기간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가 26일부터 30일까지,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전시가 7월6일부터 10일까지. 南石은 釜山師大 美術科출신으로 國展에서 활약했으며 경북道展 추천작가, 한국서예가협회 이사로 활약중. 출품작은 橫額·縱額등 50여점.

現代美術 세미나

同德女大미술관(관장 朴容淑)은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水踰里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현대미술과 그 틀이념」이라는 주제아래 제2의 현대미술 워크숍을 갖는다.

同德女大 미술관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워크숍은 지난70년대부터 일기시작한 그룹양식의 현대미술을 이념적으로 정립, 조화의 美學을 찾자는데있다. 참가희망자는 同미술관(⑫8123)으로.

中大美大 첫同門展

中央대학교 藝大회화학과(前身 서라벌藝大 미술학과) 첫 同門展이 25일부터 7월1일까지 東崇洞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첫同門展에는 中央大藝大회화과 前身인 서라벌藝大미술학과 同門 1백22명(동양화34명, 서양화88명)이 참가하는데 同門회장 安鳳奎 화백은 『한국현대미술에 기여하는 同門서로의 우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게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朴鎭洪 木漆공예전

공예가 朴鎭洪씨의 木漆공예전이 28일까지 新世界미술관에서 열리고있다.

朴씨는 서라벌藝大출신으로 國展, 商工美展, 東亞工藝大展등에서 활약했으며 현재 商工美展추천작가.

출품작은 양복장, 애기장, 머릿장, 화장대, 탁장, 문갑등.

6회 正心書會展

제6회 正心書會展이 25일부터 30일까지 미도파화랑에서 열린다.

모든 좋이 와의 生 <131>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㊵

내가 그녀를 찾아낸 곳은 어이없게도 제기동의 우리집이었다.

세호가 부산으로 가자 은애는 나에게 민회가 쓰던 문간방에 세를 들이면 어떻겠느냐고 상의를 해온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은애가, 내가 쓰던 건넌방으로 옮겨 오겠다는 뜻도 포함한 말이었는데, 고작해야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쯤 집에 들르고, 그것도 낮에 잠깐 다녀가는게 보통인 나로써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었다. 게다가 은애는 이제 실질적으로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호가 부산의 일자리로 떠날 때(그들이 제기동으로 옮겨온 지 불과 두어 주일 뒤의 일이지만) 은애는 세호를 따라가는 대신 집안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다. 은애에게 있어서 그것은 퍽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노래를 부르겠다고 세호를 만나 어찌어찌 동거하게 되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 세호마저 없는 집안을 지키게 되기까지 그녀의 선택은 몇번의 고비를 넘겼음에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민하고 피로와 하는 기색도 없이 슬그머니 그런 위치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은애의 그런 빠른 변화가 영 생소하기만 했는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으셔서, 어느틈에 두 사람은 매우 사이가 좋은 고부간이 되어 있었다. 얼마전 내가 집에 들렀을 때, 대청에서 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시는 앞에서 은애가 앉은 자세로 기타를 치며 청아한 음색으로 <찬 비>라는 제명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정겨운 장면까지 나는 목격했던 것이다.

세호는 한 달에 한번쯤 상경하는 듯했고, 은애는 마치 갇혀 있는 조롱속의 새처럼 집안에만 매달려, 그러나 즐겁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듯했다. 그런 은애가 문간방에 세를 들인 것은 유월 하순경, 그러니까 벌써 두 달도 전의 일이었다.

『복덕방에 내놓지 그래. 요 앞에 나가면…』 하고, 내가 우리 집을 잘 알고 있는 동네 노인의 복덕방을 가리켜주려고 했을때 은애는 「그럼 복덕방 수고료를 주어야 하잖아요?」하고, 곱게 나를 흘겨본 다음 「방을 구하는 친구애들이 몇 있어요」 하고, 말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아는 사람보다는 쌩 남이 낫잖아?」 내가 그런 말도 덧붙였었고, 그녀는 「괜찮아요. 우릴 불편하게 할 애들은 아녜요. 친구들한테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고…」 하고 웃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은애가 유성에서의 바로 그녀를 세로 들이리라고는 꿈엔들 상상할수 없었던 것이다.

문간방에 세든 은애의 친구는 두 명이었다. 그녀들이 세든 뒤 두달동안 나는 그저 무심하게 집에 드나들었을뿐이었다. 한번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하는 친구들이야?」 하고 내가 물었고, 은애는 「학교 다니고 그냥 적당히 지내는 애들이죠 뭐」 하고 대답한 일도 있었다. 나는 그저 막연히, 아 예전의 은애나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인 모양이다. 어쩌면 은애가 나갔던 요정에 나가는 여자들일지도 모르고, 하고 얼핏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녀들에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두달이 지난뒤 나는 문간에서 유성에서의 바로 그녀와 똑바로 마주쳤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나는 그녀들과 그렇게 마주친 일이 한번도 없었던 셈이었는데, 두달동안 적어도 서너 차례나 집에 드나드는동안 한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夫婦 아베크 칼럼

同窓會

金良淑씨 · 趙東春씨

이 동창회에 나가 보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축도로구나」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어느새 머리가 반백이 된 친구, 대머리가 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학창시절의 티를 벗지 못한 옛된 모습의 친구도 보인다.

소위 출세했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되는 일이 없어 본의 아닌 실업자가 되어 전전하는 친구들도 있다.

나는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부터 대학동창들의 그모임까지 나가 보았지만 그래도 국민학교 동창들의 모임이 비교적 순수한 편인 것을 알수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모임에서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지 자기 PR를 위해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명함돌리기, 자기 선전하기에 열을 올린다.

동창모임은 정견발표장도 아니며 도떼기 시장도 아니다.

포도주는 묵을수록 좋고 친구도 옛친구가 좋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서로 돕고 아끼고 하나로 뭉쳐 훈훈한 입김을 주고 받는데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창회라고 생각한다.

모여서 무언가 서로 도울수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옛추억을 더듬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대개의 동창회는 그런것보다는 잡담에서 시작해서 잡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매달 나가는 동창모임에 나는 그래서 제대로 나가지 않는 편이다.

물론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수는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달 꼬박 꼬박 그것도 의무적으로 회비를 내고 만나서 잡담을 하고 돌아오면서 무언가 회의를 느낀다.

우리에게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것인가?

동창회에 왜 자주 안나오느냐, 제명하겠다는 농담반 진담 반의 협박(?)전화를 받고 씁쓸한 웃음을 혼자 웃는다.

(언어문화원장)

요즘 여자들은 매달 동창회를 갖는다.

이름하여 <동창계>

계라는 형식을 빌지않고 모인다는 것은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다.

한달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동창계라도 나오면 이것이 별천지구나하는 것을 느낀다는 친구들도 많다.

나와서 시어머니 욕, 남편 욕이라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을 벌고 갇혔던 세상에서 나온 해방감이랄까?

동창계가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창이란 있는 그대로 흉허물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동창모임에 가보면 그야말로 패션 쇼의 현장을 방불케 한다.

값진 옷, 멋진 장신구, 게다가 더욱 더 눈꼴 신 것은 남편 자랑이다.

「우리집 아빠가, 우리집 아빠가」하며 말끝마다 남편에게 허기진 여자(?)처럼 Baby Word를 남발하는 꼴이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들이다.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것이 나쁜것은 아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행위가 동창끼리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는 점이다.

학교때 가까왔던 친구가 동창모임에 한번 나오고 두번다시 나오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자신이 없다는 거다.

자신이 위축되고 남편이 숙맥처럼 느껴져 동창계에 나왔다 자뭐 살맛이 안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동창들의 흉허물 없는 모임인가?

옛날의 꿈많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지고 미래지향적인 서로의 꿈들을 나누는 건설적인 모임은 될 수 없단 말인가?

여자의 허영이 동창들의 모임에서까지 흉을 추어 여의치 못한 친구들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줘서야 되겠는가?

같이 공부했던 학창시절은 얼마나 순수한 꿈의 시절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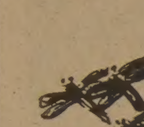
난 동창들의 모임에 자주 나가지도 못하지만 나갔다 돌아오면 마음이 씁쓸한 때가 많다.

남자들도 명함없으면 행세 못하는 데가 동창회라더니, 여자는 남편의 명함가지고 판치는 곳이 동창회라면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원컨대 제발 지위·권세·금력 모두 버리고 발가벗은 인간으로 돌아가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동창회가 됐으면 한다.

(아내교실 실장)

<다음 주제 「전갈..」>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189>

담당 민병철

【美 I루넌大 영어연구원장】

IT'S A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다」를 영어로 옮겨보라고 했더니 It's just like eating a korean cake on the bed. 라고 말한 학생이 기억난다.

「식은죽먹기」라는 말도있으나 다같이 「몹시쉽다」는 뜻이다. 영어의 표현은 직역하려면 틀리기 십상이다. 표현자체를 그대로 외는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잘아는 미국인 친구를 한국식당에 초대해서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젓가락을 사용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 보았더니 It's a piece of cake. 라고 하면서 젓가락질을 훌륭히 잘해내는 것을 보았다. 이와같이 미국인들은 「누워서 떡먹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It's a piece of cake. 혹은 줄여서 A piece of cake. 라고 한다. 이것은 「한조각의 케이크를 먹는것처럼 쉽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리라.

Is the English test hard? (영어시험이 어려운가요?) 라고 묻는사람에게 No, it's a piece of cake. (아뇨. 아주쉬워요) 라고 하면 될것이고 I don't know how to type. (타이프를 칠줄모릅니다) 라는 상대에게 It's a piece of cake to learn. (아주쉽게 배울수 있읍니다) 하면 될것이다.

「아주쉽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는 It's a cinch. 혹은 It's very easy. 가 있고 「너무 쉬워서 어린애도 해낼수 있다」에 딱들어맞는 영어표현으로는 It's so simple a child could do it. 가 있다.

—What kind of Korean food would you like to have?
—I'd like have Bulgogi.
—Fine. By the wa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It's a piece of cake.
—How in the world did you learn to use those?
—I was stationed in Korea for five years you know.
—No wonder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so well.
—무슨 한국음식을 드시겠읍니까?
—불고기를 먹겠읍니다.
—좋아요. 그런데, 젓가락질을 할 줄 아세요?
—문제없읍니다.
—도대체 젓가락질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국에서 5년동안 복무했었죠.
—그렇게 젓가락질을 잘하는 이유를 알겠읍니다.

※by the way : 그런데 (화제를 바꿀때 사용)
how in the world : 도대체
station : 주둔하다

<한국일보社시카고支社제공>

팝송코너

Raggae 사운드의 快感

創始者「보브·말레이」의 音樂세계

80년대의 팝음악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운드는 레게음악이다. 그룹 사운드는 물론, 폴·피스 오케스트러의 악기편성에서까지 종래의 드럼 세트 이외에 토속적인 각종 타악기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될 정도로 팝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린 레게음향. 이번주는 팝의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레게음악의 본질과 레게를 얘기할 때 빼놓을수 없는 사나이 봅·말레이의 음악세계를 소개하는 특별페이지를 마련한다.

팝에 영향준 魔力의 소리

자마이카 胎生…土俗 打樂器가 근간

스페인말인 레게(Raggae)의 원어는 스가(Ska)이다. 스가란 자메이카의 토속적인 타악기로 레게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절묘한 리듬의 기초가 되는 악기이다.

스가의 소리는 종래의 드럼사운드와 비교해서 보다 아담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듣는이로 하여금 마음속에 맺힌 어떤것의 정곡을 찔러 찌꺼기같은 무형의 거추장스럼을 분산시켜주는 듯한 마력의 소리다. 그 마력의 소리에 악기의 선율과 가수(흑인)의 목소리가 합쳐져 전해지는 레게사운드는 그 유향전체가 마치 우리민속의 춤타는 광대에게서 느낄수 있는것과 같은 쾌감을 전해준다.

레게음악을 얘기할때 우리는 봅·말레이를 얘기하게된다. 지난3월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난 봅·말레이는 그이름이 바로 레게를 얘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게음악에 관한한은 결정적인 인물이다.

1945년 자메이카 북부 세인트 앤에서 영국군 대위인 아버지와 자메이카태생의 어머니사이에 태어난 봅은 70년대중반 아버지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두 어번 정도 본것같다고 술회한바 있는데 이는 당시 영국군의 통치령인 자메이카의 나라형편을 잘 말해주는 보기이다.

그가 부른 노래나 연주곡중 우리나라의 팝팬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의 레게음악이 세계의 유수한 팝·아티스트들에게 끼친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다.

레게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이 음악이 세상에 팝으로 처음 빛을 보기시작한 1970년대초라는 시기와 봅·말레이, 봅의 조국인 자메이카와 봅의 종교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자메이카는 1492년 유럽인들에 의해 발견된 땅으로 인구의 90%가 아프리칸이고 나머지는 혼혈이다. 1962년 서인도제도연방에서 독립해서 영연방이 되었고 문화수준이나 교육수준은 수준이하이다. 수도 킹스턴에 극장이 단 두곳이 있을정도.

그런데 반해 녹음스튜디오는 의외로 많아 15군데의 스튜디오가 있고 뮤직프러듀서가 75명이나 된다.

봅·말레이의 종교는 개스터·페어언이라 불리는 일종의 私敎이다.

이 종교는 흑인들을 착취하는 백인들의 멸망을 예언한 이디오피아의 故셀라시에황제의 예언의 영향을 신봉하는 종교로 레게음악의 정신적배경을 이룬다. 따라서 레게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가수는 공연장소마다 무대에 셀라시에황제의 사진을걸어놓는다. 봅·말레이의 노랫말중 한가지 보기를 들어보자.

<우리들은 몹시 배고파도 놈(백인)들은 배불러 한다.

우리에게 남비는 있어도 식량은 없다. 긴 영국식민지정책에서 우리가 갖고있는것은 사회적 불안, 늘어나는 실업자, 허덕이는 근로자…。>

이러한 가사속에서 이해할수 있듯 봅·말레이는 자신의 인생철학, 세상에 고발하고 싶은것,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설득, 흑인이라는 인종문제등을 그의 노래에 담아 토해낸다.

레게의 영향의 폭넓은 것이었다.

롤링·스톤즈, 더·크래시, 폴리스, 엘비스·코스텔로, 스티비·원더, 리크·제임즈, 스모키·로빈슨, 에릭·클랩톤, 폴·사이먼, 블론디, 조니·내시등의거물 아티스트들이 레게에 깊이 몰입해 있다.

80년대 팝음향의 주류는 역시 레게가 될것 같다. 여기에는 물론 레게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illegible]하는 백인의 상혼이 깊숙이 작용하는 아이러니를 함께 지니고 있지만 그 음울한 듯하면서도 신비로운 레게 사운드에 세인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레게음악의 창시자로 불리는 봅·말레이. 그의 음악이 팝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블론디

딘·영 作

"다 됐읍니다, 범스테드씨"

"뻔뻔스런 사람같으니라구!"

"26달러나 치렀는데 내손에 쥐어진건 고작 이작은 백하나 뿐이니!"

"더큰 백에 넣어달란 말입니까?"

韓國의 恋人들

코리아 프리마 돈나 <下>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변강쇠와 옹녀는 똑같이 바닥 인생출신인데다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으며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는 부부지만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사랑을 경험한 남편과 아내다. 강쇠야말로 옹녀에게서 뜨거운 사랑을 담뿍 받은 행복한 남자이며, 옹녀는 정(情)과 애(愛)의 표본인 한국의 프리마 돈나다. 결코 마리아처럼 신비스럽기만한 여자도 아니고 아프로디테처럼 겉만 아름다운 육감적인 여인이 아닌 마리아의 신비와 아프로디테의 육체가 어우러진 한국남성들이 이상형으로 여기는 여인상이다.

서로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던 차에 우연히 만나 순간적으로 맺어진 부부—변강쇠는 옹녀에게서 더할 나위없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사나이의 애착을 펼쳐 보인다. 강쇠가 임종 찰나에 운다.

『자네는 양서(兩西) 사람, 내 몸은 삼남 사람, 하늘이 지시하고 귀신이 중매하여 오다 가다 맺은 연분, 죽자 살자 깊은 맹세, 단산(丹山)의 봉황이요, 녹수의 원앙이라. 잠시도 이별 말고 백년해로하쟀더니 일야에 얻은 병이 백 가지 약 효험 없이, 청춘소년 이 내 몸이 황천으로 갈 터이니 생기사귀(生寄死歸) 성인 말씀 나는 섧지 않거니와, 생사이별 자네 정경 차마 어찌 보자는가. 비같이 붓던 정이 구름같이 흩어지면 눈같이 녹는 간장 안개같이 이는 수심. 도리화 피는 봄과 오동잎 지는 가을, 두견이 섧이 울고, 기러기 높이 날 제, 독수공방 저 신세가 잔생(殘生)이 불쌍하다.

자네 정경 가능하니 아무리 살자하되 내 병세 지독하여 기어이 죽을테니 이 몸이 죽거들랑 염습하되, 입관하기 자네가 손수 하고, 출상한 제 상여 배행, 시묘(侍墓)살아 조석 상식 삼년상을 지낸 후에 비단 수건 목을 졸라 저승으로 찾아오면 이 생에 미진(未盡)연분 다시 맺으려니와 내가 지금 죽은 후에 사나이라 명색하고 십세 전 아이라도 자네 몸에 손대거나, 집 근처에 얼른하면 즉각 급살할 것이니 부디부디 그리하소』하고는 속곳 아구대(여자의 속곳에 열을 터 놓은 구멍)에 손길을 풀쑥 넣어 여인의 XX 쥐고 으드득 힘주더니 불끈 일어 우뚝 서더니 죽었다.

한국의 신사(선비)는 운명하는 순간 울지 않는 법. 그리고 아내의 무릎위에서 운명하지 않는다. 또 강쇠처럼 수절이며 시묘살이를 당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남자인들 마지막 순간 울지 않으며, 아내를 어루만지지 않으며 일편단심을 당부하고 싶지 않을까. 강쇠는 물론 잡놈이므로 신사도를 저버렸다 해서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강쇠야말로 적나라한 모습을 보인데다가 끝까지 애정을 확인하고 있다.

강쇠를 사랑했던 옹녀는 강쇠가 당부한대로 행동한다.

강쇠의 병을 문복(問卜)하러 왔던 소경이 경채 대신 『거 새곰한 것 있는가』고 유혹했으나 음녀(淫女)인 옹녀지만 『어, 앗으시오. 점잖은 터에 그게 무슨 말씀이요』라고 거절한다.

그리고 강쇠가 죽은 뒤 혼자서 치상할 수 없으므로 길가에 나서 어느 사내건 장사를 치러주면 아내가 되어 주리라 소문낸다. 보기만해도 끔찍스러운 송장이라 내팽개치고 새서방을 후려 내뺄 수도 있으련만 그는 강쇠의 임종 유언대로 장사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첫번째로 중을 만난다.

그러자 옥안(玉顔)을 번뜻 들어 먼산도 바라보고, 치맛자락 돌려다가 눈물도 씻어보고, 옥수를 잠깐 들어 턱도 받쳐보고, 설움도 못이겨 머리도 돌어보고 갈수록 섧게 운다. 이러한 자기연을 가슴에다가 미인이니 중인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수 있을까.

옹녀의 동허리에 손도 쑥 넣어보고, 젖도 쥐어보고 허리 질끈 안아보고 손목 꽉 잡아보더니 『우선 한번 하고 가세』조른다.

옹녀가 『바빠 먹으면 목이 메고 급히 더우면 쉬 식나니 여러 해 주린 색심 아무리 그러하나, 죽은 가장 방에 두고 새낭군 그 노릇이 내 인사가 되겠는가. 다 되어가는 일을 마음 조금 진정하소.』일인즉 그러하다 하고 중이 송장을 치우러 달려갔으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도 죽는다.

그러자 옹녀는 허신(許身)도 하지 않았는데 강짜를 하느라고 송장치레 간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송장만 치면 후에 유언대로 수절하리라고 맹세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음심을 품으면 망부(亡夫)의 넋이 해꼬지를 한다고 믿고 있다. 동래(東萊)에 이런 전설이 있다.

옥서계(玉書契)란 고을 관속이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옥서계가 갑자기 죽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문상하러 가는 길앞에 죽었다던 옥서계가 나타났다.

『아니 돌아가셨다더니 소문이었소? 어디로 가시오?』

『나는 분명히 죽은 몸이오. 그러나 내 소실이 나의 삼우제도 지내기 전에 오늘 저녁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니 분통이 안터지겠소. 그런 계집을 그냥 둘 수 없어 죽이러 가는 길이오.』

이 말을 듣고 놀란 문상객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렸지만 옥서계가 휘하니 앞서간다. 문상객들이 뒤따라보니 옥서계가 복천동(福泉洞)어느 작은 집으로 들어선다. 젊은 여인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부엌에 들어서며 식도를 손에 잡자마자 배를 움켜 쥐고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여인의 급사를 보고 친구들이 달려갔을 때 옥서계는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옹녀가 풍각장이를 불러 들였으나 역시 죽고 각설이패·마종들이 간신히 시체를 지고 북망산으로 향했으나 장승처럼 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옹녀가 안장한 후 수절하겠노라 맹세하고 뎁득이가 여인네 치마라도 만지면 변강쇠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면서 빌자 떨어졌다. 음심을 품었던 뎁득이는 절대 오입을 안겠다고 맹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루지기타령의 맨 마지막 타령은 이렇다.

—이 사설 들었으면 징계가 될 듯하니 좌상에 모인 손님 노인은 백년향수(百年享壽), 소년은 청춘불로(靑春不老), 수부귀다남자(壽富貴多男子)에 성세태평하옵소서. 명지 명지.

옹녀가 비록 강쇠의 해꼬지로 인하여 프리마 돈나로 승화하고 있지만 과정이 어떻든 그는 열렬히 한 남자를 사랑하되 정(貞)과 애(愛)를 좇은 영원히 기릴 연인이다. 강쇠 역시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한 남자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또 무한한 욕심에 얼마나 허망한 꿈인지 일깨워 주고 있다.

寡婦가 淫心품으면 亡夫의 넋이 앙갚음한다고 믿고

옹녀는 프리마 돈나로 昇華…강쇠에게만 情과 사랑을…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Please enter my subscription

NAME ....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 한국일보 1년 $90.00, 반년 $46.00
*주 1회 주간한국 무료제공 □ 1년
*주 6일 (매 8면) 발행, 신속우송 □ 반년

Office Use Only Sub Date ....

Mail this card today!

한국일보사에서는 독자들께 빠른 소식을 전해 드리고저 주2회씩 하던 식품점 배달을 주3회씩(월, 수, 금)오후에 하고 있읍니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 · 2361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週刊韓國 주간 女性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 서울식품
동양식품 · 삼복식품
반도식품 · 한국관
한국식품(본점) · 한국일보사
〃 (동부)
써니식품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㉙

金洪信 作 · 崔然石 畫

지난줄거리

미나를 구출하고 병신이 될 만큼 얻어맞은 복수를 하기 위해 종찬은 애들을 끌어들였다. 도상연습과 실습까지 철저하게 한 종찬은 천국지행교로 잠입해 들어갔다. 일롱천사를 때려 눕힌 종찬은 일롱천사에게 농락 당하고 있는 소녀에게서 정보를 얻어 미나를 무사히 구출하고 천국지행교를 빠져나간다. 유발을 만들지 못했지만 통쾌한 복수였다.

시험 준비 때문에 하숙집을 지키고 있는데 전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귀찮다는 생각으로 망설였지만 전화 벨 소리는 그칠 것 같지 않았다.

『Y동입니다.』

상대 여자의 목소리가 죄을 묻는 소리여서 점잖게 전화를 받았다.

『거기, 혹시 장종찬이란 학생 있다요?』

『전데요. 제가 장종찬입니다.』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네. 나 • 은주라고…』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 알고 말고. 잊을수 없는 여자인 걸. 기억하지 모른다니. 잊을 수 없는 여잔 걸.

『누나. 웬일야? 여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거기 어디야?』

『응, 아는 수가 있지. 시골에 갔다가 종찬이 엄말 만났어. 여긴 좀 먼 곳인데…종찬이 시간 있겠어?』

『그럼요. 어디에요, 내가 나갈께요.』

『그럴 거 없고. 내가 그 근처로 갈께. 한시간쯤 걸릴 거야.』

『학교 앞에 와서 날 찾아도 되고, 시몽이란 찻집에 오면 금방 연락 돼. 그쯤 돼서 기다릴께.』

은주 누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책을 덮어놓고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내가 열여섯살 때 은주 누나는 스물 여섯살이었다. 그 당시에 은주 누나는 국민학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고 나는 무기정학을 당해 무작정 가출을 했을 때였다.

배고픈 내게 서울이란 놈의 도시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았다.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 나는 무작정 무교동으로 갔다. 어느 놈이든지 주먹으로 한판 붙어서 빵값이라도 뜯어내고 싶었다. 촌놈이 소문으로 서울에서 명동과 무교동의 주먹 솜씨가 제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왕 붙어 보려면 그런 본바닥에 붙어 보고 싶었다.

나는 구두닦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젤 센 놈이 누구야?』

구두닦이는 을씨년스럽게 생긴 내 꼴을 쳐다보고 피식 웃었다.

『젤 센 놈이 누구냐니까?』

시골에서 써먹던 식으로 목청을 돋구었다.

『너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구야?』

구두닦이가 벌떡 일어나 구두닦이 통으로 나를 후려쳤다. 하마터면 머리통으로 방패를 할 뻔했다.

『이 자식이 이거, 눈깔 똑똑히 뜨고 봐. 내가 총찬이라구 임마. 각!』

구두닦이 통을 들고 있는 녀석을 바닥에 눕혀놓고 나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애길 해놓고 보니까 서울의 구두닦이가 나같은 촌깡다구를 알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언놈이 젤 세, 빨리 말해. 구두칼로 얼굴을 닦아주기 전에.』

구두닦이는 눈을 크게 뜨고 내 등 뒤를 가리켰다. 뒤를 쳐다 보았다. 거기 내 등 뒤에 신사복을 단정하게 입은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나이는 갓 스무살쯤 되어 보였는데 너무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있어서 부잣집 막내처럼 곱상하게 생겼다. 신사복 입은 사내의 둘레엔 비슷한 또래의 사내들이 대여섯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간편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첫 눈에도 제법 깡치가 세어 보였다.

『형씨가 이 바닥에서 젤 세진 않잖아. 난 진짜 센 친굴 찾는데.』

내가 손을 털고 일어나 이렇게 지껄였다. 사내가 빙그레 웃었다.

『자식, 귀엽군.』

『여봐 형씨. 나도 꽉찬 스물야. 머리 깎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냐. 이제 막 벌판 떼고 나와서 그래.』

나는 이렇게 능청을 떨었다. 그런 세계에선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는 엄포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쩝쩝, 못봐주겠구나. 너 어디서 굴러다니다 왔어?』

『명동 해치우고 이 바닥 좀 먹어볼까 하구 왔다.』

『으하하하…』

사내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내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나도 그게 무슨 명령인지 알 수 있었다.

사내들이 순식간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몰폭 한이 갑자기 서고러워졌다.

나는 다섯 사내들의 손목과 발목을 적당히 때리며 구석으로 밀려갔다. 적극공격법으로 나서지 않으면 당할 것 같았다. 제 솜씨가 있는 사내들이었다.

쏜살같이 튀어나오며 두명을 돌아세며 다시 양발걸이로 두명을 메쳐 눕혔다. 신사복의 사내가 재크 나이프를 펴들고 느물거리며 웃었다.

『우리 신사적으로 하자. 달러 놓고 사내답게 말야.』

내가 주춤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사내가 씩 웃었다.

『너 솜씨 괜찮은데 나하고 일해 볼 생각 없어?』

사내는 이렇게 묻고 재크 나이프를 접어 넣었다.

"너 어서서 왔어?" "이바닥 먹으러왔다"

그들은 팔짱을 낀채 웃고있었다. 깡치가 세어 보였다

『밥 먹여주면 생각해 보지.』

『너 어디서 왔어?』

『콩밥 먹다, 이제 나왔다고 했잖아.』

『날 속이려고 하지 마라.』

사내들이 쭉 일어나 다시 나를 에워 왔다. 나는 벽에 기대어 그런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너 몇학년야?』

사내가 재차 물었다. 나는 더 버틸 수가 없었다. 콩밥 먹다 나왔는지 학생인지 그는 구분할 줄 아는 사내였다.

나는 그날 저녁에 무교동 건너편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 가서 땅개의 부하들과 한판 붙었다. 확실히 촌놈들보다는 월등한 실력이었다.

나는 두녀석을 꺼아꿍겠지만 세번째 칼자국 난 녀석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녀석은 생긴 것 만큼 솜씨가 있었다. 나는 그래서 그날부터 땅개의 부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서 왕왕거리던 내 신세가 말이 아니게 된 것이었다. 서울놈들의 실력이 그 정도로 탁월한 줄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땅개의 전위부원으로 무교동 일대를 휘젓고 다닐 때 은주 누나를 만난 것이었다.

은주 누나는 뾰족구두를 신고 무교동 큰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하얀 색깔의 핸드백과 원피스의 꽃빛 색깔이 어울리는 여자였다. 뒷모습이 어쩌나 예뻤는지 나는 괜히 시비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 누나가 길을 건너려는 순간 뒤에서 꼬마들이 은주 누나를 덮쳤다. 핸드백을 날세게 채 가지고 골목길로 뛰었다.

『강도야, 강도야!』

은주 누나는 악다구니를 쳤다. 나는 그 순간 은주 누나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뒷모습에 비하면 못생긴 여자였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 은주 누나는 뾰족 구두를 벗어들고 골목길로 뒤쫓고 있었다. 나는 쇼 윈도 옆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 골목길로 뛰었다.

꼬마들이 복잡한 골목으로 나누어 뛰었다. 나는 은주 누나를 앞질러 뛰었다. 핸드백을 들고 뛰는 녀석이 나지 골목을 빠져나가 더 좁은 골목으로 뛰었다. 나는 속력을 늦추고 뒤따라 뛰어오는 은주 누나에게 소리쳤다.

『더 가지 말아요. 큰일 나요. 저기 꼼짝 말고 서 있어요. 내가 찾을 테니까.』

은주 누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나는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섰다. 붉은 벽돌집 계단으로 올라갔다. 꼬마는 나를 보더니 씩 웃었다.

『형, 그 기집애 갔어?』

꼬마는 나를 보더니 안심이 되었다는 듯이 말했다.

『이리 내라, 임마.』

『왜요? 형, 왜 그래.』

표정이 사나와졌다. 무교동의 전통적 의리로 보면 그런 물건의 주인은 따로 있기 마련이었다.

『이리 줘. 어서.』

내가 다가서자 꼬마는 눈을 부라렸다.

『꽁치 형님한테 깨지려고.』

『꽁치? 까불면 박아버릴거야. 어서 이리 줘.』

꼬마는 핸드백을 바닥에 내던지고 험악하게 나를 노려보았다.

『형,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꽁치 형님 성깔 알면서.』

『이 새끼가 꿰지고 싶은가. 곱게 말할 때 내놔.』

『형, 그래 정말.』

『우리 누나야 임마. 나 만나러 왔다가 니들한테 걸렸어. 사람 봐가며 채야지 이 새끼들아.』

『에이, 형. 공갈 치지 마. 형이 먹으려고 그러지.』

『진짜 누나야.』

『꽁치 형님한테 뭐라구 하려고 그래.』

『꽁치구 멸치구 간에 나 건들면 국물도 없다구 그래.』

나는 핸드백을 들고 내려왔다. 핸드백 빼앗긴 여자들이 성급한 마음에 따라 올라갔다가는 도리어 큰 봉변만 당하기 일쑤였다. 꼬마들은 호락호락한 녀석들이 아니었다. 잘못 돈 찾으러 올라갔다가는 치마도 벗어야만 했다.

은주 누나는 골목 입구에 힘없이 서 있었다. 내가 핸드백을 들어 보이자 은주 누나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나는 은주 누나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누나를 따라 빵집으로 들어갔다. 은주 누나와 애기도 몇마디 나누지 못하고 나는 바깥으로 나와야만 했다. 꽁치 형님이 나를 불러 낸 것이었다.

나는 그날밤 은주누나를 빼앗아 몽땅 갖고싶었다

헤어진지 6년만에 초췌한 얼굴로 나를 찾았다. 단박 불행을 읽었다

나는 성질에 못이겨 꽁치 형님과 꼬마들을 늘씬하게 패주었다. 꽁치형님이 꼬마들을 때리고 도망가자 은주 누나는 나를 택시 속에 밀어넣었다.

내 딱한 처지를 자세히 들은 은주 누나는 나를 귀가할 때까지 데리고 있게 되었다.

은주 누나는 저녁마다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고 저녁마다 내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곤 했다.

은주 누나에게 얹혀 사는 나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창신동 고개턱의 자취방에서 나는 누나의 팔을 베고 누워 극성스런 어머니보다 훨씬 따스한 정을 느끼곤 했다. 은주 누나는 아침밥을 먹고 나가면 저녁 때가 돼야 돌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누나와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한대로 바깥에 나가지 않은 채 누나의 책꽂이에 가득 꽂혀 있는 책들을 읽곤 했다. 은주 누나는 아침마다 숙제를 내주었다. 나는 비로소 도스토에프스키며 카뮈같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근사하게 살았다는 걸 인정했고 소설책을 왜 사람들이 읽어대는지 알았다.

나는 은주 누나와 한 방에서 사는 두달 동안 가장 행복했었는지 모른다. 누나는 잠옷차림으로 누워서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고 내 단벌 팬티를 빨아 주면서도 꺼림칙해 하지 않았다.

『너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나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또 손가락을 걸며 정말 친형제처럼 평생을 같이 살 것처럼 굴었다. 누나에게 친절하게 생긴 애인이 있었다. 누나의 책상 위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진 한장만으로도 나는 심한 질투를 느꼈었다.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빵이며, 음료수를 들고와서 미안해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더욱 행복했다. 그 누나의 가슴은 따뜻하고 컸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아무일도 없는 순수한 형제처럼 지냈다. 문득문득 나는 누나를 끌어안고 싶어했다. 누나는 그런 내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었다.

『누나, 시집 갈 꺼야?』

내가 이렇게 물으면 누나는 나를 도닥거리며 웃었다.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해.』

『꼭 가야만 되는 거야?』

『그럼, 나이가 차면 종찬이도 알게돼. 그게 자연의 섭리며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인 거야.』

『나같으면 혼자 살겠다. 얼마나 좋아.』

『내가 혼자 살면 좋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그런 나를 주먹으로 때렸다. 나는 평생 누나하고만 살고 싶었다. 다 큰 여자와 한 방에서, 그것도 여자의 팔을 베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자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 용군이 형도 좋은 사람야. 누나한테 얼마나 잘한다구. 그러니까 종찬이도 좋아해야 돼.』

용군이는 누나의 애인이었다. 고등고시에 몇번 실패하고서도 굴하지 않은 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사내였다.

나는 누나와 살면서 용군이란 녀석이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란 것과 그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누나의 뒷바라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누나는 용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혼처와 좋은 한 가정에서 뛰쳐나와 고생을 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풍족하다고 해봐야 별 거는 아니었지만 용군이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선 직장을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너도 이담에 크면 알게 돼. 서로 사랑하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우린 행복하단다. 그 사람이 고시에 패스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가 있어. 설령 패스하지 않아도 좋아. 그저 사랑하는 걸로 난 만족해.』

누나는 음악소리에 맞춰 대사를 읊듯 이렇게 잔잔한 음정으로 말했다. 나는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누나는 나를 잡아당겨 이마에 입술을 대주었다.

『종찬이 질투하니?』

나는 아무 대꾸없이 다시 돌아눕곤 했다. 한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누나가 하도 말을 많이 해줘서 그의 모습까지도 알 것 같았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질투에 휩싸여 있곤 했다.

누나는 가을에 결혼하게 되어 있었다. 용군이의 나이 때문에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고시에는 꼭 패스할 거라는 확신이 누나에게 있었다.

누나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용군이가 고등고시에 패스하기 때문이었다. 누나는 교육대학에 다닐 때부터 용군이의 학비와 책값을 대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용군이는 오직 공부만 전념할 수 있었던 정이었다.

『종찬아, 내가 뭐랬니? 된다구 했지. 내가 귀신이지. 정말 그렇지?』

누나는 최종 합격자발표를 듣고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 했다.

나는 슬펐다. 울적해서 견딜수 없었다. 아니 죽고 싶기까지 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언제나 용군이가 평생 고등고시에 합격하지 않기를 빌고 있었었다. 그러면 누나는 언제까지나 나에게 할 수는 없었다. 용군이가 고시에 합격하는 순간부터 나는 맥이 빠져 버렸다. 누나와는 반대의 심정이었다.

나는 그날 밤 누나를 빼앗고 싶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누나를 몽땅 갖고 싶었다.

나는 밤중에 누나에게 매달렸다. 누나는 그런 내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 맘 안다. 그러나 이래선 못쓰는 거야. 누나의 행복을 네가 빌어주지 않으면 누가 빌어주니? 난 부모님에게서도 쫓겨났고 친구도 없어. 오직 그이만을 위해 살아왔어. 그러니 너라도 우릴 축복해 줘야지.』

나는 울었다. 누나도 울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번 손가락을 걸고 맹세를 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형제가 되자고.

이튿날 누나와 나는 헤어졌다. 누나는 내게 길고 그윽한 입맞춤을 해주었다.

『널 사랑한다는 징표야.』

나는 눈을 감고 누나의 입술을 받았다. 달콤했다. 황홀했다. 아니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전체가 부풀어 터질 것 같았다.

헤어진지 만 6년이 넘은 지금까지 나는 한번도 누나를 찾지 않았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내가 나타남으로 해서 누나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누나가 그 뒤에 결혼을 했다는 것과 용군이가 공무원생활을 치우고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T그룹 중견간부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그 은주 누나가 나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과거 속으로 빨려들어가며 누나가 어떻게 변했을지를 그려보고 있었다.

옛날처럼 어련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았다. 30대 초반의 여인, 대기업체 간부의 사모님, 적당히 살도 찌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잔주름이 조금씩 생긴 여인.

나는 그런 상상을 했다. 아름다운 몸매의 보고싶은 얼굴이었다. 시계를 들여다 보아도 시간이 잘 가지 않았다. 나는 미리 나가서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시몽으로 나갔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은주 누나의 주변에 생긴 것 같았다. 그녀가 갑자기 나를 찾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것 같았다. 내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것 정도밖에 그녀는 알고 있지 못했다.

『여기, 여기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은주 누나는 웃었다. 초췌한 얼굴, 핼쑥한 낯빛, 어딘지 좋기는 못한 모습, 표정 속에서 나는 은주 누나의 불행을 읽었다.

『별일 없었어? 정말 오랜만이구나.』

누나는 내 앞에 털썩 앉았다. 두어해에서 나는 또 한번 초조함을 읽었다.

『누나 무슨 일 있구나? 그렇지.』

나는 어쩌면 용군이 얼굴을 떠올렸는지 모른다.

『그럴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널 찾은 거야. 나 이혼했단다. 엊그제 감옥에서 나왔구…내가 이꼴이 될줄이야.』

누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다음호에 계속>

獻詞

—6·25 서른한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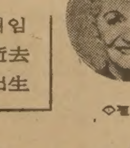
金奎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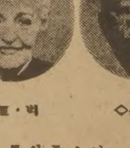
말하지 않는
하늘과 들이
말하지 않는
님들과 산천초목이
우리 가슴 휘감으니
6월은
차마 되새길수 없는 추억이고나
제 동족끼리
피흘려 싸우다니
삼천리 내 강토
불바다 만들다니
후퇴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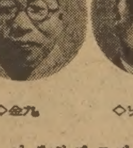
바람속에
흐느끼는 울음소리
천지에 가득 넘쳐
온세계
자유와 양심의 벗들아
그대들은 이 비극을 어떻다 하는가
포연속에 사라진
수많은 형제들
검은 흙에 묻혀 세월은 가고
남북의 대결 속
우리는 살아서
위태로운 번영의 시대를 누린다
오
하늘과 들이
사라진 님들과 산천초목이
이리도 막막하고 서글픈
남북이 하나가 되는
상념의 불길이 일으켜세우니
눈부신 탄생의 아침은
언제이냐.

歷史로 본 이 週의 人物들

□埃낫세르、大統領에 취임
□金九선생 피습、逝去
□美小說家 펄·벅 出生


◇펄·벅


◇金九


◇낫세르

낫세르 郵便배달부 아들로 태어나 革命일으켜 權座에

金九 抗日救國運動에 앞장, 上海 臨政主席이 되기도

펄·벅 中國서 선교사生活, 「大地」로 노벨文學賞수상

▲이집트 낫세르首相, 대통령에 취임(1956·6·25)

1918년 1월15일 가난한 우편배달부의 아들로 태어난 낫세르는 어렸을 적부터 英國占領軍에 항의하는 同盟休學과 데모속에서 革命의 情熱을 키워왔다.

1938년 보병소위로 임관된 낫세르는 48년 팔레스타인戰爭에 참가, 가슴에 중상을 입었는데, 이 전쟁의 참패를 통해 그는 파루크王 治下의 봉건상태로는 祖國의 방위조차 힘들다고 느끼게 됐다.

52년 7월23일 낫세르 中領은 自由將校團을 중심으로한 군사혁명에 의해 파루크王을 몰아내고 共和政을 선포, 11명으로 구성된 革命司令部를 설치했다가 53년 나기브少將을 首相으로 하는 政府를 구성하고 副首相겸 內相으로 취임했다.

1년후인 54년 나기브마저 除去, 首相이 됐고, 56년6월25일 새 헌법에 의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혁명후 農地改革, 수에즈運河의 國有化, 英國軍 基地 철수등 급진적인 社會改革을 단행했고 58년 시리아와 合倂, 統一아랍共和國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아랍圈의 주도적人物로 군림했다.

67년 이른바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에 大敗한 뒤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로 그를 유임시켰다.

1970년9월29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金九 피습 서거(1949·6·26)

70평생을 조국의 완전독립과 滅絶를 절규했던 민족주의의 선구자 白凡 金九는 철저한 武力우선적 독립쟁취 지상주의자였다.

교육이라고는 고작 書堂밖에 다니지 못했으나 18세때 東學에 入門하여 사상적 갈증을 메우고 東學革命軍에 가담하여 항일구국운동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뒤 1919년 3·1운동때까지 교육사업, 투옥, 독립운동계획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다가 上海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경무국장이 되었다.

이때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자청하는등 지위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고 단결과 솔선적인 협의 과시만이 日帝를 분쇄할수 있다고 부르짖었다.

白凡은 그후 내무총장을 거쳐 39년 臨政을 長沙로부터 重慶으로 옮기고 이듬해 主席이 되었다.

白凡은 조국을 日帝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光復軍을 양성하여 크게 타격을 주는 무력 독립쟁취의 길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國內進入작전을 계획하던중 해방을 맞아 귀국했다.

광복이후의 국내정세가 혼란과 무질서속에에 남북이 軍政으로 돌아가자 이를 비감하게 생각하던 白凡은 南北協商을 시도했으나 공산당의 야심으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詩·書·畵로 허탈과 울적을 메우려 노력하였으나 49년6월26일 安斗熙육군소위의 흉탄을 맞고 절명했다.

▲美 소설가 펄·벅 출생(1892·6·26)

美國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文學賞을 수상한 펄·벅女史는 1892년 6월26일 美國 웨스트 버지니아州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 바로 부모를 따라 中國대륙에 건너갔다.

17세가 될때까지 줄곧 중국에서 자랐다.

그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914년 다시 중국에 들어가 21년간을 장로교회 선교사로 지냈다.

1926년 처음으로「중국여인은 말한다」라는 소설을 썼으며 1929년「東風 西風」이란 작품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大地를 집필, 31년 출판되었는데 그후 21개월간이나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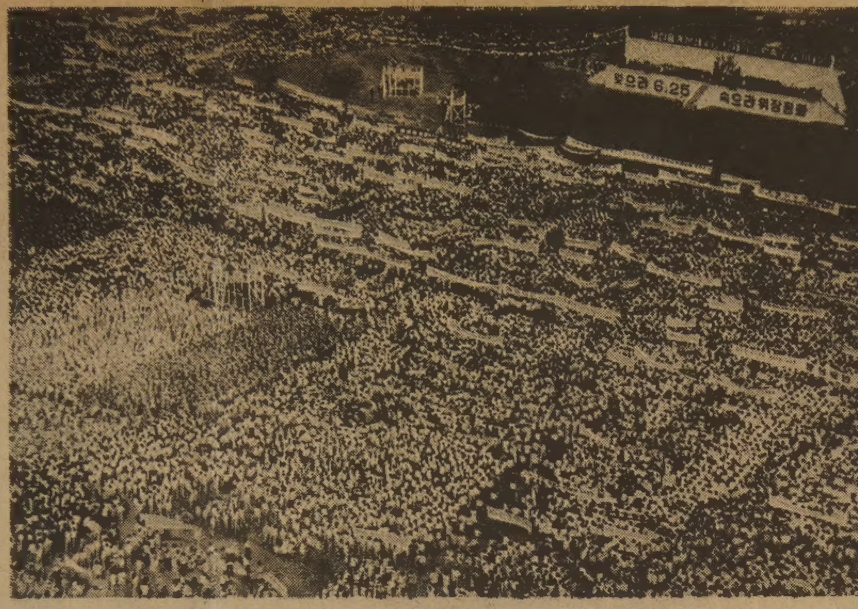
1932년, 작품 大地로 퓰리처賞을 받고 1938년 美國문학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노벨文學賞을 받았다.

1973년3월6일 80세의 나이로 사망할때까지 84권에 달하는 소설·수필·전기물·회고록등을 집필한 펄·벅女史는 특유의 쉽고 려엄한 문장력으로 새로운 문학스타일을 개척했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遲進兒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 작품활동에서 모은 돈으로 1964년 펄·벅재단을 창설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第2南侵흉계 버리고 6·5提議 수락하라"



◇다시는 6·25없도록 2백만의 反共절규。6·25 31주년을하루앞둔 24일상오 서울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2백만명이 汝矣島광장에 나와 「북괴는 재침야욕을 버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6·5제의를 수락하라」고 외쳤다。

2百萬시민 北傀규탄
金日成·金正日 火刑式도
서울汝矣島서 궐기대회

북괴의 재침흉계를 규탄하고 6·5평화통일 제의 수락을 촉구하는 겨레의 함성이 서울하늘을 찌르고 북녘땅으로 메아리쳤다. 24일 상오 10시 서울여의도 광장에서는 서울시민 학생 회사원 공무원 예비군등 2백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괴 재침흉계분쇄및 6·5제의 수락 촉구궐기대회」가 열렸다.

徐鍾喆한국반공연맹 이사장의 대회사로시작된 이날대회는 姜信明목사와 黃山城국회의원의 궐기사와 귀순용사들의 북괴규탄사, 金日成에 대한 시민고발장낭독과 金日成·金正日의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진다음 李李根예비역 육군대장이 선창하는 만세삼창으로 1시간 반만에 끝났다.

徐대회장은 대회사에서 「6·25의 원흉인 金日成은 35년간 공산독재체제를 구축한채 경제난과파탄을 뒤덮기는커녕 제2의 남침을 획책하고있다」고 규탄했고 姜信明목사는 궐기사를 통해 「북괴는 이제라도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무모한 남침책동을 중단하고 평화적통일을향한 민족의 염원에따라 全斗煥 대통령이 제의한 6·5제의를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궐기사가 끝나자 군중속에서 朴潤鎬 千玉仙 두시민이 등단 「4천만이 일어섰다」「북한동포 구출하자」는등 구호를 외치자 광장을메운 시민들은 피켓과 플래카드를치켜들며 따라서 외쳤다.

이어 최근 월남한 李絲在 李英雨 두귀순용사가 金玉女高학생이 걸어주는 꽃다발을 받으며 등단, 朴英秀서울시장으로부터 시민증을, 李祿浩원호처장으로부터 생활정착금을 전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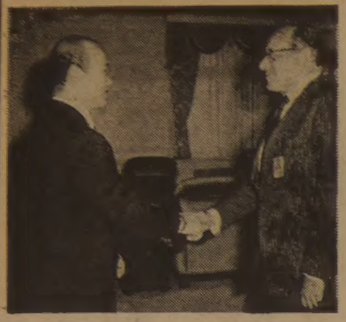
또 대회순에따라 향군대표 蘇必永씨가 「1천8백만 북한동포를 구원하는 신념으로 6·5제의를 기필 성취해달라」는 내용의 대통령에드리는 메시지를, 또 서울大총학생회장 崔煥烽군이 세계자유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낭독하자 참가시민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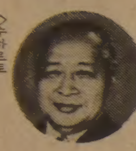
이어 연단에오른 尹善二대한상이군경회장은 ▲金日成은 북한주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북괴는 남북대화에 성실히응하라 ▲북괴는 불법남치어선과 승무원들을 즉각송환하라 ▲우리는 반공단합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할것을 다짐한다는등 4개항의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직장사회단체대표인 韓相赫·방유성두사람이나와 金日成에대한 고발장을 큰소리로낭독하자 궐기시민들의 치솟는분노와 규탄의열기는절정에이르렀다.

반공연맹은 24일의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각지방에서도 오는26일부터 30일까지 6·25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각 시도별일정은 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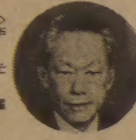
▲釜山·경기=26일 ▲강원·충남·제주=27일 ▲충북·전남·경남=29일 ▲전북·경북=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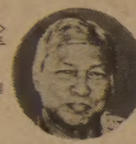
全大統領 오늘 아세안巡訪 登程
頂上회담… 多角협력 논의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세인·온 말레이지아首相


◇李光耀 싱가포르 首相


◇프렘 泰國수상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25일상오11시 공식수행원 20명을 대동하고 보잉707 대통령특별기편으로 金浦공항을 떠나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5개국巡訪길에 오른다.

지난1월 訪美에 이어 두번째로 해외나들이길에 오르는 全대통령은 오는7월 9일까지 14泊15일간 아세안5개국을 공식방문, 인도네시아의수하르토 대통령、말레이지아의 후세인·온수상, 싱가포르의李光耀수상, 泰國의 프렘수상,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모두 6차례에걸친 頂上또는 首腦회담을갖고 쌍무적인 협력관계증진방안등 상호 관심사에관해 광범위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全대통령은 특히 일련의 頂上회담을 통해 이들 개별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문화및 기술협력등 다방면에 걸친 實質협력관계증진방안을 논의하고 東北亞등 지역정세및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全대통령은 또 1·12제의와 6·5제의등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을 설명하고 韓半島의 평화定着을 위해 이들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全대통령을 수행하는 申秉鉉부총리겸 기획원장관, 盧信永외무, 周永福국방, 朴鳳煥동자부장관등은 인들국가의 관계장관들과 별도회담을 갖고 자원개발, 기술협력등에 관해 實務的인 협의를 벌일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은 出國에 앞서 金浦공항에서 있을 환송식에 참석, 내외인사들로부터 환송인사를 받고 출국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全대통령의 아세안5개국 巡訪일정은 다음과같다.

▲인도네시아=25일~29일 ▲말레이지아=29일~7월1일 ▲싱가포르=7월1일~3일 ▲泰國=7월3일~6일 ▲필리핀=7월6일~9일 ★관련기사5·11면

經協 美代表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24일하오 청와대에서 韓美경제협의회 美측 수석대표 마이어·라시시 美국무성경제담당차관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사진⑤〉

駐韓美軍 戰鬪力강화
85년까지 새重砲·對戰車헬機·레이다등

【워싱턴23日=聯】 미국은 駐韓美 제2사단의 전투능력을 대폭강화하기로 결정, 1985년까지美2사단이 보유한화력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킬계획이라고 미군사전문지 아미·타임즈지가 23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82회계연도에 실시될예정인 화력증강계획은 고성능중포, 신형對전차헬리콥터, 새레이다체제, 전자전부대편성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금년초駐韓미군병력을 현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美2사단은 한국에주둔하는 미군중 단위부대로서는 가장 큰 부대이다.

아미·타임즈지는 국방성관리들의말을인용, 美2사단의 2개 105㎜포병대대가 금년가을까지 끝나는 고성능포 대체계획에 따라 신형M198 155㎜곡사포를 공급받게되며 또하나의 105㎜포병대대가 금년8월 완료예정으로 M114A2 155㎜곡사포를 공급받게된다고 말했다.

82회계연도에서 85회계연도까지의 미2사단에 제공될 여타장비는 다음과같다.

▲82회계연도=AH IS 코브라헬기 81㎜박격포 AN/PRC68송수신기 ▲83회계연도=드레건對전차미사일 전자전술전파방해체제(TACJAM) ▲84회계연도=UH60블랙호크헬기 복수발사로키트체제 레이저유도156㎜포탄 ▲85회계연도=소형컴퓨터로 박격포발사를 조정하는 야전포지휘체제 스팅거對空미사일 FISTV 장갑수송차

佛共産黨 4명入閣
34년만에 社會黨정책 支持조건으로
運輸·行政改革·保健·職業訓練相 임명

【파리23日AP로이터=聯合】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23일공산당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폴란드정책등에서 약간의 양보를 얻어 내는대신 모르와수상의 새사회당 정부에 4명의공산당각료를 입각시키는 중대조치를 단행, 프랑스는 지난1947년이래 공산당 각료를 탄생시킨 최초의 주요서방국가가 되었다.

피에르·베레조보와 대통령실대변인은 이날 4명의 공산당원이 포함된 제2차 43人 모르와 내각명단을 발표하고 공산당내 제2인자 샤를·피테르망 아니세·르·포르상원의원 영화연극 전문가 자크·랄리트그리고前금속노동자마르셀·리구등 4명의공산당원이 각각 운수상·보건상·행정개혁상·직업훈련담당상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프랑스공산당이 각료직을 차지하기는 지난47년이래 91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각에서 국회의장으로 추대될것으로 알려진 루이·메르마스(社會黨) 등모르와 수상정부의 1차내각의 각료5명이 내각을 떠나게됐으며 에드몽·에르브 보건상(사회당) 등 7명은 다른각료직으로 전보발령됐다.

새모르와 정부는 24일 미테랑 대통령의 주재하에 첫각의를 소집할예정이다.

공산당의 이같은 역사적입각조치는 社會·共産양당지도자들이 이날 10시간에 걸친 협상끝에 ▲공산당이 미테랑 대통령의 모든 對內外정책을 준수한것과 ▲양당이 아프가니스탄주둔소련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아울러 폴란드국내개혁에 대한 외세의개입을 배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치적합의에도달, 공동정치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정치적 합의는 이외에도 프랑스가 앞으로도 계속 기존우방들과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나 궁극적으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동맹등 동서군사블록의 해체를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유럽에서의 군축실현을 위해 매진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관련기사3면

이 정치적 합의는 또 中東문제와 관련, 이스라엘과 이지역 모든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민족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재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제2차 모를와 내각명단은 다음과같다.

다음은 이날 새로 기용된 각료직 명단이다.

◇신입각료(6명)

▲法相=로베르·바딘테(사회당) ▲운수상=샤를·피테르망(공산당) ▲공업상=피에르·드레퓌스(사회당) ▲직업훈련담당상=마르셀·리구(共産黨) ▲보건상=자크·랄리트(共産黨) ▲행정개혁상=아니세·르·포르(共産黨)

"經協·에너지등 5個小委 구성"
韓美경제협의회閉幕 발표문

韓美양국은 24일 交易을 확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증진하기위해 무역·漁業·에너지·企業및投資와 과학기술등 5개분야별로 각각 實務小委員會 (Joint Group)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韓美양국은 이날 이틀간에 걸친 제1차經濟協議會를 끝낸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5개 實務小委는 각각 특정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양국정부기관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쌍방간에 틀별한협의를 필요로 하거나 一方의 요청에의해 수시로개최、정부對 정부간의 접촉을 補完하는 기능을 맡게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의 양측수석대표인 盧信永외무장관과 마이어·라시시美국무성경제담당차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후 중앙청에서 가진 국내외기자회견을통해 이번회의에서 양국은▲무역▲에너지▲자본협력▲기술협력▲농산물교역과 차관▲어업협력▲해운협력및항공등 두나라사이의 경제현안전반에 관해 협의,「건설적이고 긍정적인」의견을 교환했으며 그결과에대해 양측모두가만족을표했다고밝혔다.

지난2월 韓美頂上회담의 합의에따라 개최된 이번 經濟協議會를통해 특히 한국은 앞으로도 한반도및 東北亞의 安保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자주적인 국방능력을 달성하고 경제적으로 自立할수 있을때까지 美側이 여러가지의 특별고려를 해야한다는 소위「安保와 經濟」의 상호連繫논리의 적용과 이의 시행을 요청한데 대해 美側이 이해를 표했다고 양측대표단은밝혔다.

韓半島통일 擧論
全대통령、첫訪問國 印尼서

【자카르타23日AP=聯合】 全斗煥 대통령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5개국순방중 첫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지도자들과 만나 한국의 통일문제등 정치문제와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에관해 토의할것이라고 카하루딘·나수티온 駐韓인도네시아대사가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나수티온 대사는 이날 수하르토 대통령을 방문, 이번 全대통령의 인도네시아방문에관해 논의한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社会漫評

무성하기를 31년간…

地平線

미꾸라지 한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더니 지각없는 한운전사가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일본인 여자관광객을 김해공항에서 서울까지 전세로 태우고 온 택시운전사가 손님이내리자마자 짐을 실은채 뺑소니 친 사건은 어이도없지만 당사자아닌 모든 시민의 분격을 사고도 남게한다. ▼「일본에서처럼 운전사가 짐을 내려 주려니 생각했는데…」이 한 마디가 우리의가슴을 찌르는 것이다. 여비와 짐이 몽땅 들어있는 트렁크를 잃은 津崎田紀子여사는 택시운전사의 소행에 실망하다못해 울상을 지었다. 4백만원어치의 금품도 아깝지만 한국을 거쳐 유럽에 가려던 외국여행의꿈이 수포로 돌아간 津崎여사는 한국여행 첫날밤을 경찰에서 사진을 다보내다시피하고 긴급국제전화를 받은 일본친척이급히 달려와귀국했다는것이다. ▼물론 좋게생각하면 택시운전사는 밤11시가 다된탓도있어 손님이내리자마자 아무생각없이 그냥가버린것이지, 도망친것은 아닌지 모른다. 하나 그렇다면 지금쯤 이름모를 이국여성이 얼마나 당황해 하고 있을까를 알만도 할텐데 한시바삐 신고라도 해야될것이다. 또 설사 일시적인 잘못으로 뺑소니를쳤다하여도 자기의 조그만 실수가 엄청난결과를 가져온것을 알았을터이므로 마음을 돌이켜 어떤수단을 써서라도 금품을 돌려줘야 우리국민의 체면이 서지않을까. ▼그뿐 아니다. 도난신고를받은 경찰의 수사에도 미스는있다. 그밤중에 고속도로나 국도를 통해 달아난 택시를 왜 못잡았는지 안타깝다. 짙은 갈색 트렁크와 숄더백등 3개, 택시색깔은청색, 운전사는 35세쯤 돼보이는 건강한 체격이라고한다. 김해 공항에서 서울로 6만원에 전세냈다니 그런 차와 운전사를 수배하면 보통범인과 달라 검거는 그리 어려울것 같지 않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광역수사는 어디로 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또 범인을 못잡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하룻을 원망할 이 일본여자관광객에게 달리 어떻게 보상할 길은 없을는지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것같다. 체면을살릴 방법을찾아야 되겠다는 뜻에서다. ▼우리사회가 안정되고 경기도 차츰 회복되면서 외국관광객이 다시 몰려든다고 한다. 5월만 11만명이 입국했고 일본인이 제일 많다고 하는판에 이 무슨 변고인지 송구해지기만한다. 한마디 더보탠다면 김해나 김포공항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외국손님을 안내하는 택시운전사들의 교양도 문제이려니와 이런일이 더는 안생기도록 근본대책을 곧 찾아야하겠다.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 당
은 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3
은 : 온스당 US 9.3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특별할인은 6월20일 까지입니다
SUN... ...SUN...ROOFS!
MOON'S LETS THE SUN SHINE IN!...
WINDSHIELDS
INSTALLED • ALL MAKES
INSURANCE CLAIMS
SUN ROOFS
FROM ONLY $140.00 INSTALLED
GRAND OPENING SPECIALS
VINYL ROOFS ONLY $100.00
Car Upholstery and Steam Cleaning Available.
MOON'S AUTO TRIM & GLASS LTD.
638-0656
12 LE PAGE CRT. UNIT 4 DOWNSVIEW
정 해 문
Finch & Keele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NOW 30 VOLUMES!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부산대학교
동창 야유회

초여름 우거진 숲속에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웁시다.
음료수및 불고기등은 회장단이 준비하고 가족들을 위한 게임도 준비되어 있읍니다.

일 시 : 7월4일(토요일) 오전10시
장 소 : ROWNTREE MILLS PARK
(Islington × Finch Ave.에서 Islington북쪽)
연락처 : 755-9902

부산대학교
동창회장단

성남중고등학교
동문야유회

일 시 : 7월5일 11시(일요일)
장 소 : Heart Lake Conservation Park
(Hwy 410 & Steel에서 Queen St. 북쪽으로 3마일)
연락처 : 윤 정 석(266-3971)
(점심제공, 경품 많이 준비되어 있음)

동문들의 건승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시원한 여름철로 접어들었읍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소식도 듣고 쌓인 피로도 풀고자 위와 같이 야유회를 갖고자 하오니 온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하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남동문회 회장
방 익 석

財産등록 범위등 異見

公職者 倫理法案 公開간담 끝나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案심의 6人小委(위원장 柳尙昊)는 24일하오 공개간담회를 속개, 金泳謨(中央大교수)、金東煥(변호사)、申泰植(全經聯상무이사)、金重光씨(朝鮮耐火기획실차장)등 초청자4명의 의견발표를 듣고 이번안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의 의견발표자들은『法의 악용에 대한 補完策은 마련해야하지만, 깨끗한 공직자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는 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재산공개와 등록의 적용범위등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을 보였다.

柳尙昊 李春九 丁時采(이상 民正)、朴寬用 柳暎相(이상 民韓)、趙炳奎의원(국민)등 6人小委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범위확대 ▲공직자의 취업制限 ▲法의 實效性 문제등에 관해 질문했다.

◇公職者倫理法案에 대한 이틀째 공개토론을 벌인국회內務委 6人小委의 24일하오간담회。

大企業·學園포함 여부도

內務6人委 法의 惡用막는 補完策 필요

豫決委에 小委구성

豫算심의 따른 各常委주장 反映

李運營委員長 밝혀

국회는 현행 國會法에 常任委가 예산심의를 할수없도록 되어있는 제도상의 未備點을 補完하기위해 豫決委에 3~4명씩의 각常委위원으로 구성되는 小委를두어 해당常委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李鍾贊국회운영위원장은 24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현행 國會法에는 常委에서 예산심의를 할수없게 되어있지만 3~4명의 각常委위원들이 부문별로 豫決委에서 예산심의를하고 그들이 해당常委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豫決委에 常委의사를 반영하게되면 실질적으로 각常委가 소관업무별로 예산심의를 하는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라면서『他黨총무들과 豫決委의 이러한 운영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政府·民正30日에 黨政協議會 개최

정부와 民正黨은 오는30일 民正黨중앙당사에서 黨政協議會를 갖고 제108회 임시국회소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한다.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의 초청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黨政協議會에는 정부측에서 南悳祐총리와 鄭宗澤정부1장관등 관계장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民正黨은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대학입시등 문교정책의 개선방안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群小黨의 協力모색 高民社黨首 앞장서

高貞勳民社黨 당수는 23일하오 金義澤 民權黨총재, 金甲洙 新政黨총재를 각각 방문, 群小정당간의 협력방안등을 협의했다.

이자리에서 3黨대표들은 각당간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院內에서는 행동통일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免稅點인상 建議키로

民正、低所得봉급자 安定위해

民正黨은 低所得봉급생활자 의 생활안정을위해 所得稅의 기초공제액(免稅點)을 올리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숙정公職者 취업제한解除

앞으론 모든 職種의 就業·채용보장

공무원再任用만 2~5년간 계속不許

(해설) 肅正公職者에 대한 就業제한조치가 이번에 해제됨에따라 지난해 7월9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단행된 공직자정화작업으로 물러난 모든 공직자의취업이 완전히 자유로와지게됐다。

공직자였던 8천4백43명은 지난2월중에 취업제한조치가 가해졌고 3급이상등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앞으로 7월중에 풀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9월 정화작업당시 적용했던 취업제한기간을 3급이상 공무원과 정부산하단체임원급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을 1년으로, 4급(서기관) 이하 또는 정부산하단체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로 각각 단축、조정했었다。

이에따라 4급이하 下位직 [illegible] 지금까지 취업이 제약되기 ... [illegible]

(【柳寅學기자】)

最古의 太極旗돌려준 윌렴·롤스턴氏 부부

本社방문

한국國民 기뻐하는 모습에 감격

『한국민들이 태극기를 돌려받고 감격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1890년 高宗의 외교고문이었던 O.N.데니가 高宗에게서 하사받은 태극기를 돌려준 윌리엄·롤스턴씨 부부가 ... [illegible]

◇『한국사람들이 태극기를 돌려받고 너무기뻐하는 모습에 감격했다』고말하는롤스턴씨 부부。

社說

아세안과의 새 紐帶

—全대통령巡訪登程, 歷史的前進이다

韓國外交의 고무적인 새 里程標 수립을 기대케하는 가운데 全斗煥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공식수행원 20명을 대동하고 오늘 상오11시 金浦공항을 출발, 아세안(東南亞國家聯合) 5개국 巡訪길에 오른다. (公式訪問日程은 7월9일까지 14泊15일간이다。

이기간에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 말레이지아의 후세인·온수상, 싱가포르의 李光耀수상, 泰國의 프렘 수상,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을 방문하며 6차례에 걸친 頂上회담을 갖고 政治·經濟·外交·安保·文化및 技術協力등 다방면에 걸친 實質協力관계의 深化와 友好增進방안을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東南亞5개友邦과 共感帶 뚜렷하다

韓國·아세안協力에 劃期的인 里程表를

統一·安保문제에도 깊은認識 다짐토록

"정부正統性 投票로 부여 國內혼란은不願"

柳民韓총재

"고양이가 방울을 달아야 쥐가 달려들지 않는다."

◆ 政局往來

北傀 野慾못버려 各黨6·25聲明

3黨總務 내일會談 國會소집·外交논의

人口保健硏院장 朴贊武씨

內外動靜

本社來訪

PICTURE FRAME WAREHOUSES

"액자는 서정생활의 거울 알뜰한 꿈
품위있는 취미를 이 한틀에…"

영업시간 : (월·화·수·토) 9 : 30~6 : 00

(목·금) 9 : 30~8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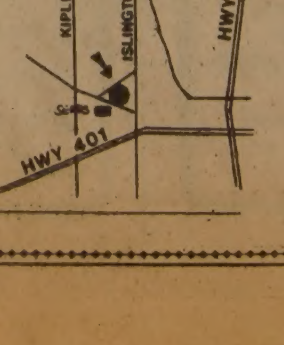
*CUSTOM FRAMING 30% OFF

*수천종류의 액자가 진열돼 있으며, 교포에 한해 진열상품의 액자를 1개 사실경우 1개를 더 무료로 증정합니다.

*빠른시간 써비스(24HOUR) *각종 유화판매

☎ : 245-5122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AT ISLINGTON AVE.)



降伏 문서쓴 佛共産黨

佛社會黨정부 入閣 背景

아프간 侵攻반대·폴란드介入 경고

美核미사일 西歐배치도 認定

國內문제도 社會黨 정책 지지키로

蘇路線지지"반대로 突變

◇샤를·피테르망 ◇마르셀·리구 ◇자크·랄리트 ◇아니세·르·포르

【파리24日=金聖佑특파원】 들어간다 안들어간다하던 공산당이 결국 프랑스정부에들어갔다. 서구에서는 프랑스가 공산당각료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쇼크가 크다. 정부에 4명의각료를 들여놓기위해 프랑스공산당은 모든것을 양보했다. 2차투표가 끝난 다음날인22일 저녁 사회당과 공산당은 양당간의 이견을 조정하기위한협상을 시작했다. 장장10시간의 마라톤회의끝에 양당대표들은 23일 새벽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공산당으로서는 항복문서나다름없는 이합의내용을 놓고 당중앙위원회는 장시간 격론을 벌이면서 결국 받아들이기로했다.

이협상에서 공산당은 우선 국가간의 불간섭·불개입원칙을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을 찬성해온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반대입장으로 돌았다.

폴란드문제에 있어서도 『폴란드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적개혁노력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희망』하는데 합의하여 소련의 개입을 경고했다.

공산당은 또한 지금까지 소련의 SS20미사일이 서구를 겨냥하여 배치한것이 핵균형을 깨뜨린것이 아니라는 모스크바의 주장을 지지해왔는데 이문제에있어서도 이에 대항한 미국의 핵미사일 배치를 인정하고 유럽에서의 군축협상을 적극추진한다는 태도를 취하게되었다. 공산당은 나토등 대외동맹을 준수하기로했다. 중동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소련과 함께 캠프·데이비드협정을 비난해온 공산당은 이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상의 대외문제는 지금까지 사회당과 공산당간에 가장 견해차이가 컸었던 것들이다.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공산당은 합의문서를 통해 미테랑의 개혁정책의 기본원칙과 범위에 찬동하고 미테랑이 선거기간중에 내세운 공약이 정부의 기본헌장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산업국유화의 범위는 1977년에 사회당과 공산당이 공동강령의 현실화를 위해 재협상하면서 가장 대립되었던 문제였고 결국은 이때문에 공동강령이 무너졌다.

이번에 공산당은 이 국유화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회당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서 양당은 정부레벨에서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주 마찰을 일으켜온 지방행정단위및 각기업체내에서도 각기 손을 잡는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공산당은 사회당의 요구를 모조리 받아들인 셈이다. 사회당과의 협정은 친소노선을 걸어온 공산당의 자기비판이나 다름없다.

좌익계의 리베라송紙는 『공산당이 무릎을 꿇고 정부에 들어갔다』는표제를1면톱에내세웠다. 마르셰공산당수는 이 급전환에 대해 『항복이 아니라 우리당정책의 발전』이라고 변명했다.

공산당이 사회당과 좌파연합을 주도한것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좌파의 집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

공산당지배하에 있는 노조는 오래전부터 공산당의 정부참여를 희망해왔다. 입각은 노조가 혼돈을 어놓을 사회적 혼란을 막아 줄수있다.

그리고 사회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자기당을 밀어준 공산당의 수백만표에 대해 빚을 갚은것이 되고 공산당이 온건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고무하여 교조주의적이고 스탈린주의자인 공산당을 길들인다는 뜻도 있다.

미국은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걱정한 것이 프랑스의 불안정과 공산당의 정부참여였다. 총선거에서 사회당의 압승으로 일단 정치적불안정은 걱정없겠다했는데 정부에 공산당이 들어갔다. 미국정부는 이탈리아공산당이 1976년 정부에 들어갈 태세가 되었을때부터 이문제를우려해왔다.

이번에 프랑스가 앞장섬으로써 서구에서는 가장 공산당세력이 큰 이탈리아가 불안해 진다. 때마침 공산당이 참여한 새 내각의 첫각의가 열린 24일 조지·부시미국부통령이 엘리제궁을 방문했다.

미테랑은 공산당이 기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발언권을 행사할수없다고 안심시키고 민감한 외교문제나 군사정보에는 공산당 각료의 접근을 안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미국으로서는원내 다수세력을 확보하기위한것도 아니면서 굳이 공산당을 들여 놓는데에 불만이 있다.

소련은 사회당의 집권을 좌파의 승리라고 고무하는 입장이었으나 공산당이 사회당과 손을 잡음으로써 당황해졌다. 프랑스공산당은 소위 유럽코뮤니즘일원으로 독자노선을 걷다가 1977년사회당과의 연합이 깨어지면서 친소노선으로 돌아왔고 이번에 공동강령의 재생이나 다름없는 협정을 사회당과 맺음으로써 다시 모스크바와 거리를 두게되었다.

서구에서 근년에 공산당이 정부에 들어간적이있는 나라는포르투갈 아이슬랜드·핀란드등이다.

「仁川상륙」에서「北京회담」까지

헤이그 31年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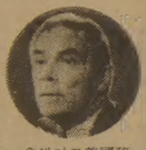
◇맥아더원수를 따라 仁川상륙작전에 참가했던 헤이그중위는 이제국무장관으로서 한국과 정치·군사적 결속을 다지는 입장에있다.

달라진 立場…6·25에 생각한다

反共이反蘇로…防衛線확대

당시 맥아더副官、蜜月한달만에 韓國戰場에

이제 한국도함께 蘇팽창주의 沮止 同伴者로



◇헤이그美國務

1950년5월24일. 알렉산더·헤이그는 東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나이 25세였던 헤이그중위는美극동군사령부에서 맥아더사령관의 부관으로있다가 상관의딸 패트리셔·폭스양을신부로 맞았다.

美육사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입관된지 2년만에막을올린 이청년장교의 蜜月은 그러나 한달 하룻만에 돌연 끝났다.

동란이 터진 한국전선으로 출동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美제10군단에 배속된 그는 5차례 실전에참가、勳章을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9월15일에단행된 仁川상륙작전에 가담、갯벌을 딛고 北으로의 진전선을따라 올라갔었다.

오늘날 미국外交를 총지휘하는 헤이그국무장관의 한국전參戰은 대부분 부관아니면 참모로서였다.

그로부터 31년째 헤이그는 월남전에선 야전지휘관、백악관에선 전략、정치참모 그리고 나토총사령관을 거치면서 군인으로선 뛰어난 전략가로 인정받고 외교에있어서 높은 眼目을 평가받아국무장관직에 오르기에 이르렀다.

2백40만의 인명피해를낸 한국동란은 우리민족사에 더할나위없는 비극이었음은 이론의 여지가없다. 하지만 지금와서 역사적 한사건으로점을 찍히고만 그동란은 한국이 세계사에 본격적으로 맞물리게된 싯점이었다. 16개국이 우리편을들어 싸워주었고 중공군이 북한편을 들어 싸웠다는점에서 한국전쟁은 세계를 한반도에 끌어들인전쟁이기도했다.

결코 달가운 인연은 아니지만 分斷으로 전후시대를맞이한 우리로서는 언젠가는겪고말았을 재난을 너무일찍체험했다고 불만한 측면이없지 않다.

6·25의 戰禍를 밟고한국과 인연을 맺었던 헤이그가 이달들어 아시아에서 긴旅行을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北京에 들렀던 헤이그는 미제 공격용무기를 대주겠다고 약속했다. 마닐라에 가서는 미국이 버리고 떠난 무기를 들고 소련의 비호아래 東南亞의 평화를 깨는 공산 베트남의 버릇을 잡기위해 아세안 5개국을 외교·군사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다. 헤이그의 발길은 뉴질랜드수도웰링턴에 가서야 멎었다. 50년대에 발족한이후 별로 그 存在를 실감할수없었던 美·濠·뉴질랜드 상호방위조약(ANZUS)을 상황변화에 맞춰 再活動을 하기로 못을박았다.

이 旅程에서 헤이그가 한결같이 펼쳐든 기치는 反蘇연합전선의 형성이었다.

한국동란작전에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초가되었던 對共봉쇄정책의 기둥이 80년대에 들어 뱉안간 모습을 다시 뚜렷하게 드러내는 형상이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81년의오늘을 가르는 30년남짓의 時差가 주는 현상적·감각적차이는 엄청나다.

조지·캐넌이 성안했던 봉쇄정책은 전후 발칸반도의공산화에이어 중국대륙조차 赤化됨에따라 그 팽창의 칼날이 더이상 자유세계를 넘보지못하도록 견제하기위해 취해진 다분히 방어적조치였다. 때문에 트루먼행정부는 그해 6월28일 派兵을 결정하면서 북한의 남침은 소련이 한국보다 중요한 다른지역에 팽창하려고 벌이는 陽動작전을 의심했다.

그래서 트루먼은 한국다음 소련이 어디서 전쟁을일으킬까 국무·국방성에 검토시키고 한국전쟁을 치르는동안에는 소련과 전면전을 피하도록노력하고 그사이에 美군사력을 급속히 증강시키는 길을 택했었다.

한국동란당시 실력으로 공산세력의 팽창에 대처한것이나 오늘날 헤이그가 아시아에서 방파제를 구축하려는것은 모두 소련을 첫째 표적으로 삼고있는건 마찬가지다.

레이건행정부에와서 反共이라는 이념적 색채는 자주 강조되기까지한다.

하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난 우리가 지금 갖는 反共이라는 감각은 미국의 그것과 현저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레이건이 강조하는 반공은 反蘇로 그 차원이 좁혀져있다.

헤이그가 찾아간 北京은30여년전 그가 맞서싸운 예전의 敵이지만 反蘇라는 목표에 一致했기 때문에 내편으로 끌어들였다.

한세대가 지나는 사이에미국의 묵시적인 對共방위선은 중국대륙에서 동남아시아와 대양주로 변모해서그어졌다. 한국동란을 자초했다는 애치슨 라인(알류산열도—일본—오끼나와—필리핀)에서 훨씬 서쪽으로 이동했다고나할까. 공격용무기까지 중공에 대주기로한 헤이그의 약속에서엿보이는 뚜렷한 변화다.

레이건과 헤이그팀은 소련의 팽창주의와 미국의 宥和주의가 60·70년代에 빚어낸 미국勢의 퇴조를 회복하고 전략상 헛점을 메우는데당장 신경이 쏠려있다.

한국도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미국이 막아주는 대상이 아니라 어깨동무를하고 소련의 팽창을 막는 동반자의 입장으로 변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받던 한국이었지만 이젠 한몫을 하는만큼 좀더 당당해질수있게 세상은 많이 변했다.

【金炳默기자】

韓半島有事時 대처討議

日、美軍 지원등 即應戰略향상엔 肯定的

來29일 美·日國防장관會談

【東京23日=聯合】일본방위청은 오는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과 오오무라·조오지(大村襄治) 일본방위청장관 간의 美·日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하는 미군지원방안등 이른바 극동유사시의 공동대처방안을 검토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일본의 共同통신에 의하면 방위청은 와인버거·오오무라 회담에대한 기본방침을 ①76년에 결정된 방위계획대강의 수준을 상회하는 미국측요청은 수락할수 없으나 ②극동유사시 미군지원방안 연구개시와 탄약비축확대등 즉응전략향상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청의 하라도루(原徹) 사무차관은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에게 지난번 하와이 美·日안보실무협의회결과를 보고하는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방위력증강의 우선순위가 ①유사시 즉응태세확립②지속전투능력향상③지휘、관제、통신능력향상④장비현대화의 순이라고 밝혔다.

'韓半島무력對決 위험尙存'

앤저스外相會議 공동성명

【웰링턴23日UPI=聯合】미국·호주·뉴질랜드등 앤저스(ANZUS)동맹3국은 23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규탄하고 소련의 폴란드개입이 국제평화에 중대한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뒤 2일간의 30차연례 외상협의회를 마쳤다.

3개국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 긴장과 무력대결의 위험이 상존하고있다는데 주목한다고 말했다.

美、日本에요청 武器공동개발 生産

【東京24日=聯合】미국은 일본에 대해 무기를공동개발、생산하는 한편 군용전자부품을 미국에 공급해주도록 요청해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美서 平和協商기피"

브레즈네프、蘇최고회의 開幕연설

【모스크바23日AP=聯合】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는 23일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위협을 불식하기 위한국제적 노력을 호소하고 소련은 東·西의 여하한 국가와도 대결을 원치않는다고 선언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개막된 소련입법기관인 蘇聯최고회의 전체회의에서 14분간 계속된 개막연설을통해 특히세계 각국의회가 군비경쟁을종식시켜 새로운 대전발발을방지하기위한 가능한 모든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하고 소련은 세계의 어떠한 국가와도 대결을 원치않으며 군사적지배의 우위도 모색하지않고있다고 말했다.

브레즈네프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규모로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지적, 미국은 군비경쟁제한문제를 비롯하여 국제간의 분쟁및 세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협상을 기피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미그機 5臺격추

아프간叛軍 夏季대공세

【이슬라마바드23日UPI=聯合】아프가니스탄회교반군은 지난4일부터 21일까지 아프간주둔 소련군과 아프간정부군을 상대로 감행한 하계대공세에서 5대의 소련 미그21전투기를 격추시키고 3백명의 소련군과 아프간정부군을 사살하는 한편 1명의 소련전투기조종사를 사로잡았다고 반군대변인이 23일 밝혔다.

회교반군대변인은 야흐·샤라프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자히딘(자유의투사)회교반군이 아프간북동부 나가르하르지역의 모타노스에서 소련—아프간정부연합군에 대공세를 벌여 그와같은 전과를 올렸으며 회교반군측 희생자는 4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메아리

最古의 태극기가 돌아왔다. 소리 없는 환국이지만 역사의 감회는 깊다. 91년만의 귀국이 지나간 「격동1세기」를 증언해줄것만 같다.

19세기 후반은 「鎖國朝鮮」이 어지럽게 외세에 시달렸던 시대였다. 동시에 근대국가로서의 골격을 갖추려고 몸부림 치던 시대이기도 했다. 무력한 양반사회가 쇠퇴하고 백성은 자각의 눈을 떴다. 외세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조용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운양호사건을 일으켜 일본이 선수를 쳐왔다. 병자수호조약을 강제로 맺고 침략의 제1보를 내밀었다. 당시 시비를 건 이유의 하나가 [illegible] 국기를 단 운양호에 포격을 했다는 억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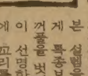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국기의 의미와필요성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것이 이때부터였다. 전해진대로 태극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82년의 일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태극기나 애국가는 그 제작이 「未詳」으로 가리워진 부분이 너무 많다.

처음 나온 태극기는 일본의 한반도 強占까지 통일되지 못한채 여러모양으로 사용되었다.

「最古」의 還國

이번에 돌아온 태극기는 高宗의 외교고문을 지낸 미국인 O·N·데니가 고국으로 돌아갈때 하사받은 것이다.

데니는 원래 淸國의 추천으로 우리나라에 왔지만 主權國朝鮮을 강조하다 오히려 李鴻章의 미움을 받아 밀려난 친한 외교관이었다. 그가 하사받은 이 「最古」를 찾아낸것은 한국사학자와 한국일보기자의 끈질긴 추적의 개가라고할수있다.



지하실서고에 간직되었던 이 태극기를 처음 본 설렘을 본지는 연초 이렇게 특종보도했다. 『마지막 한꺼풀을 벗기자 그속에는 紅靑이 선명한 태극무늬가 꼬리에 꼬리를 문채 어우러져있었고 태극무늬를 감싼 靑色의 괘가 시야를 압도했다』

最古의 태극기를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과 다르다. 오늘의 국기는 정부수립후인 1949년 국기제정 특별위원회서 5개의 도안중 하나를 채택한것이다. 확정할때 제3안으로 알려진 현행 국기는 한국국기보양회가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國寶還國의 반가움과 함께 다시금 수난의 역사를 새겨보며 숙연함을 느끼게된다.

◇파리이란留學生의 호메이니지지데모 파리의 이란유학생들이 23일 파리주재이란대사관앞에서 호메이니옹을 지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 이날 대사관 부근에서는바니·사드르대통령을지지하는시위도벌어졌으나 두군중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파리23日UPI聯合=聯合】

"사드르 곧逮捕·재판"

이란議員 警察서 국내隱身處포착

【베이루트23日AP=聯合】이란당국은 반혁명혐의로 대통령직에서 축출된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이란내에서 은신하고있는 지역을 포착했으며 그를 곧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란의회의 중진의원이 23일 밝혔다.

또한 유고의 탄유그통신은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그의 출신지역인 서부이란의 하마단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 은신하고있다고 테헤란의 풍문을 보도했다.

이란집권 회교공화당의 중진의원인 하산·아야트는 이날 베이루트의 AP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아직 이란에 있으며 경찰이 그의 소재지를 찾아냈고 그는 곧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될것』이라고 말했다.

아야트는 그러나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은신처를 세부적으로 밝히지는않았는데 이란서부의 케르만샤주 혁명검찰당국은 바니·사드르대통령이 케르만샤지방에 은신중일 가능성이 높다고말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를 보는대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카이로의 이집트관리들은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카이로에 있다는보도에 논평을 거부했으나 정통한소식통들은 이집트당국이 바니·사드르의 이집트망명요청을 승인했으며 그가 48시간안에카이로에 도착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자이 後任대통령有力

이란回教共和후보 확실

首相엔 나바비

【베이루트23日AP=聯合】축출된 아볼하산·바니·사드르 전 이란대통령의 후임으로는 모하메드·알리·라자이수상이 가장 유력시 된다고 테헤란의 믿을만한소식통들이 23일 말했다.

베이루트에서 전화로 접촉된 이 소식통들은 라자이 수상이 집권회교공화당(IRP)으로부터 차기 대통령선거의 후보지명을 얻을것이며 경합없이 출마할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이소식통들은 또 미국인인질위기당시 이란측 수석협상대표였던 베자드·나바비정부대변인이 라자이 수상의 대통령출마시수상직을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르救命 호소

印尼 회교委議長

【자카르타23日AP=聯合】인도네시아 회교단결위원회의 루크만·하룬의장은 23일 성명을 발표, 바니·사드르 이란前대통령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아야툴라·호메이니옹에게 호소했다.

黃華、내일訪印

【北京24日聯合=聯合】중공외상 黃華는 중공과 인도와의 원활치 못했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25일 그동안 지연돼온 인도방문길에 오른다.

黃은 베트남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인도가 캄보디아정부를 승인한다고 발표한 뒤 당초의 인도방문계획을 연기했었다.

北京주재 인도외교관들은 黃이 나라시마·라오 외상및 인디라·간디수상과의 회담에서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것 같지는 않으나 양측은 두나라사이의 장래관계를 증진시킬수 있는 보다 폭넓은 이해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女高生이 목매自殺

【光州=聯合】24일 상오8시께 光州市東區錦南路2가 光州백화점15층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3m높이의 쇠파이프에 전남여고2년 金모양(17·光州市西區雙村洞1002의13)이 여자용 분홍색 스카프로 목을매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金양은지난22일밤 저녁밥을 먹고 가출, 아무런 소식이없어 그동안 애를 태워왔다는것.

金양은 가족과 담임선생앞으로 2통의 유서를남겼는데 경찰은 金양이 생활고와 학교성적이 떨어져 자살한것으로보고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동우가족야유회

— 체육선수 선발대회 —

동우 가족여러분!
풍성한 여름철을 맞이하여 바쁜일손을 잠깐멈추고 동우 전가족이 푸른초원에 모여 즐거운 하루을 보내며, 심신에 쌓인 피로를 푸는 자리를 마련하였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마음껏 뛰놀게 할 재미있는 순서와 상품들를 준비하였읍니다. 또 동우명물 통돼지도 준비하였읍니다. 전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런던 동우가족이 버스를 대절코 참석하오니 서로 회포도 푸는 좋은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7월4일(토) ※우천시는 7월11일(토)로 연기함. 오전10시~오후5시
장 소 : Morningside Park(스카보로, 엘스비어×모닝사이드 중간 서쪽)
중 식 : 각자지참(바베큐용기준비요함)
추 기 : 재 카나다 대한체육회주최 체육대회및 민중신문사주최 어린이 축구대회에 출전할 선수 선발대회를 당일 실시합니다.

1981년6 일

동우회이사 임원일동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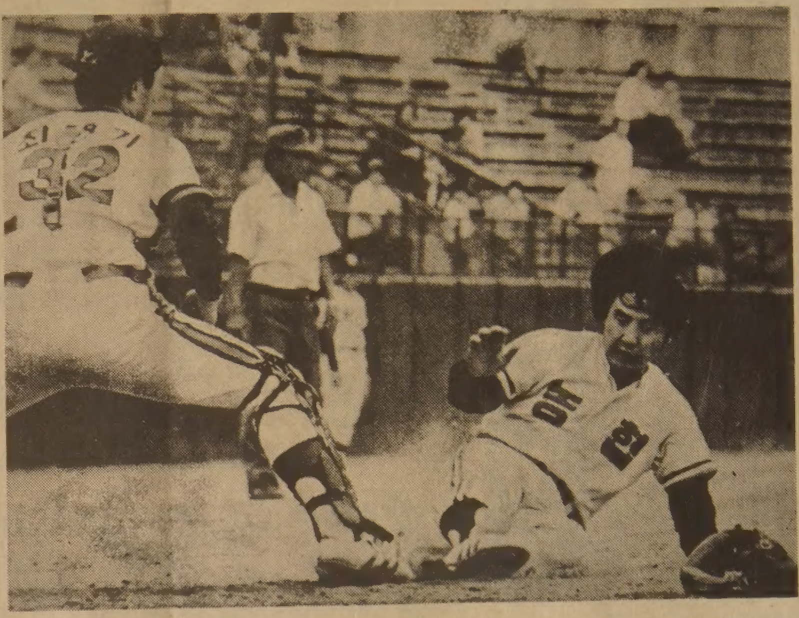
-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IL4
김형범 536-2155·2156 (R) 429-7580

韓國化 9連敗늪서 탈출

金奉淵 1회말 결승 3點홈런



◇희비로 4번째 홈인 農協5회초 공격에서 좌중간 안타로나간 2번 李三烈이 후속안타로 5進한후 4번 洪熙燮의 좌희비로 생환, 4점째를 올리고있다。

실업野球연맹전

金奉淵과 黃圭奉등 국가대표선수들이 韓國化粧品을 실업연맹전 9연패의 늪에서 구출하며 후기1차리그 첫판을 승리로 이끌었다。 24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이틀째 韓國化粧品－韓一銀行대전에서 金奉淵은 1회말 역전결승3점 홈런을 터뜨렸고 黃圭奉은 컨트롤좋은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삼진8개를 빼앗으며 산발6안타 2실점으로 막아내 金의 수훈타를 결승점으로 지켜냈다。 金奉淵의 홈런은 자신의 올시즌 5호째이며 黃圭奉은 연맹전후수성적 6連敗후 첫승리를 따냈다。 롯데－農協대전에서는 양팀포수의 어깨가 나빴던점을 파고들어 12개의 도루를 기록하는 실업야구답지않은 게임내용을 전개한끝에 롯데가 6－4로 이겼다。

黃圭奉호투 韓一銀제압 3－2

經理團도 롯데추격 따돌려

한편 전날경기서 經理團은 金始眞의 호투로 崔正基 鄭永基의 연속홈런으로 따라붙은 롯데를 3－2로 꺾었다。

金奉淵의 안타는 4게임의 침묵을깨고 5게임째만에 나온것이었다。 2차리그 후반 4게임서 11타수무안타의 슬럼프에 빠져있던 金은 후기 1차리그 첫판 첫타석에서 그비로소 안타를기록했는데 그것도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결승3점 홈런이었다。 韓一銀언더드로 盧相守의 안쪽높은초구를 강타, 좌월 1백10m의 큰아치를 그렸다。

韓化승리에 또하나의 원동력은 黃圭奉。 지난4월 釜山시장기대회에서 패권을 끌어내는데 큰몫을했던 黃圭奉은 2차리그들어 6게임에등판, 5패라는 불명예스러운 전적을 남겼으나 국가대표로 재신임을얻고난뒤 첫게임서 맹위를 떨쳤다。

韓一은 1회초 선두1번 金在相이 내야안타로 출루, 2번 朴庸成의 내야안타와 적실로 생환, 1점을 선제했으나 1회말 金奉淵에게 역전의 홈런을 허용한뒤 줄곧 이끌려가다 8회초 2死2루에서 4번 金容哲이 좌월적시2루타를 날려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제2일전적

한일은행(1패)	100	000	010	2
한국화장품(1승)	300	000	00×	3

▲홈런＝金奉淵(1회말·3점·한화)

농협(1패)	000	220	000	4
롯데(1승1패)	040	101	00×	6

◇제1일전적

롯데(1패)	000	000	020	2
경리단(1승)	102	000	00×	3

▲홈런＝張孝祚(3회말·경리) 崔正基(8회초) 鄭永基(8회초·이상롯데)

아시아테니스大會 來1월 콸라룸푸르

【콸라룸푸르23日(聯)＝聯】아시아테니스선수권대회가 내년1월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말레이지아수도 콸라룸푸르에서 16개국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대회조직위원회가 23일발표했다。

아시아테니스서키트위원회(ATCC)의 G·N·라잔사무국장은 총상금 10만달러가 걸린 이대회의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각각 2만5천달러와 1만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大宇、日올스타制壓

日원정蹴球서 1勝1敗기록

【東京23日AP＝聯】한국의大宇축구팀은 23일 日本 오까야마(岡山)縣에서 벌어진 日本실업리그 올스타팀과의 경기에서 2－1로 승리, 訪日전적 1승1패를기록했다。 大宇팀은 이날경기에서 전반전을 2－0으로 앞섰으나 후반에 1골을 허용했다。 大宇팀은 21일 日本실업챔피언 안마티팀에 2－0으로 패배한바있다。

◇전적

大宇 2 (2－0, 0－1) 1 日本실업선발

延世大、日本大 제압

韓日大學 초청농구 日3連敗 기록

延世大는 23일 奬忠체육관에서 열린 韓日대학농구 3차전에서 吳世雄 李展動 金甲璋의 분발로 日本大를 76－64로 제압했다。 이로써 日本大는 내한전적 3패를 기록했다。

延世大는 전반 吳世雄 高明和의 交叉조로 초반부터 리드를잡아 전반을 38－30으로 앞섰다。 日本大는 선수전원을기용, 다까하(高羽) 가게야마(景山) 가노(加納)등이 추격전을 벌였으나 延世大의 시스팀플레이를 깨지못해 대패했다。

◇3차전

延世大 76 (38－30, 38－34) 64 日本大

韓美대학야구 내달10일개막

제2회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다。

韓國대학선발팀과 全美아마추어야구협회(USBF)가 선발한 全美대학선발팀이 우열을가리는 이번대회는 7연전으로벌여 4선승팀이 우승하게된다。 금년에 내한하는 全美대학선발팀은 오는24일부터 7월7일까지 日本에서열리는 日美대학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팀을 주축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惠英 한국新 수립

공기총대표선발전 女일반서 3백86점 획득

金惠英(육군사격지도단)은 24일 泰陵종합사격장에서 속행된 제2회 세계공기총사격선수권대회(8월8일~15일·도미니카공화국)파견 최종3차선발전 여자일반 공기권총에서 3백86점(4백점만점)을 적중시켜 3점을 초과하는 한국신기록을세우고 수위를 차지했다。

金은 지난4월 멕시코 베니토후아레스 국제대회 청소년 공기권총에서 3백74점으로 金메달을따냈으며 이번에 다시 세계기록에 1점 못미치는 대기록을 냈다。

이종목에서 3백83점으로 한국최고기록을 가지고 있던 金良子(기업은)는 근래 자총대회를 휩쓸었지만 이날은 3백78점의 평범한 기록으로 2위에 머물렀다。

사격연맹은 이번 세계대회에 공기소총10명(남일반4·여일반3·청소년3명) 공기권총10명(〃)등 20명의선수를 파견할 예정인데 선수선발은 25·26일 이사회를 열어 확정짓는다。

◇대회전적〈종목별1위〉

▲남일반 공기소총＝윤덕하(지도단) 573▲동남자주니어＝박찬학(대전체) 379 ▲동여자일반＝조옥자(한국은) 384▲동주니어＝이홍기(국민은) 382▲남일반공기권총＝최승만(국민은) 573▲동여일반＝김혜영(지도단) 386▲동남녀주니어＝서인택(광운공대) ▲남일반공기권총＝최승만(국민은) 573▲동여일반＝김혜영(지도단) 386▲동남자주니어＝서인택(광운공대) 374

三千浦女中 준결진출

전국男女 중학농구 崇義女를大破 62－20

제6회 회장기쟁탈 전국남녀중학농구대회 4일째 준준결승전이 장충체육관서 속행, 여중부서 慶南의 三千浦女中은 서울崇義女中을 21골차인 62－20으로 대파, 준결승에올라 덕성女中과 결승진출권을 다투게 됐다。

三千浦女中은 지난4월 춘계연맹전서 우승, 이번 대회서도 가장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또한 德成女中과 恩光女中의 대전서는 덕성女中이 41－23으로이겨 三千浦女中과 결승진출권을 다투게됐다。

한편 남중부서 창단2년의 延曙中은 明知中을 44－34로 제압했고 首都中은 養正中을 61－42로 완파 延曙中과 결승진출권을 다투게 됐다。

준준결승전을 마친 결과 여중부에서는 善一、成德、三千浦、덕성女中이 4강에 올랐으며 남중부서는 龍山中、大京中、延曙中、首都中이 준결전승에 진출했다。

◇제4일전적

▲남중준준결승

수도중 61－42 양정중

연서중 44－34 명지중

▲여중준준결승

삼천포 62－20 숭의

덕성여중 41－23 은광여중

5년만에 復活

韓日고교교환경기

韓日고교교환종합경기대회가 5년만에 부활, 오는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해 도오꾜에서 열리게 됐다。

日本체육회 河野謙三회장은 지난76년 제9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韓日고교교환종합대회를 부활시켜 금년 8월에 우선 테니스와 연식정구 축구등 3개종목만 도오꾜에서 개최하자고 24일 초청장을 대한체육회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韓日교환경기를 부활시키는데 찬성하고 오는 7월13일 이전에 양국실무진 2명이 서울에서 경기일정과 대회개최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臺北籠協 加入계획

李ABC회장 밝혀

【臺北23日CNA＝聯】아시아농구연맹(ABC)은 自由中國臺北농구협회(CTBA)를 ABC회원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李秉禧ABC회장이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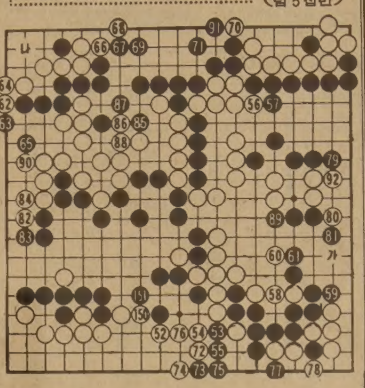
국제농구협회(FIBA)부회장직도 맡고있는 李회장은 이날 이틀간의 自由中國방문을마치고 귀국에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밝히고 또한 자신은 FIBA가 지난8일 새로운호칭아래 自由中國을 회원국으로 다시가입시키기로 한결정을환영한다고 말했다。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9譜 150~192 (각 5시간 덤 5집반)

白 (挑戰者) 徐奉洙

黑 (名人) 曺薰鉉



결과부터 말하면 이바둑은 盤面으로「빈」、黑이 덤인 5집반을 패하고 말았다。 초전에 중앙黑4점을 잃은뒤부터 名人의 추격은 그야말로 눈부신바가 있었으나 도전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強柔를 섞어가며 이에대응하여 결국 黑을 뿌리치고 보기좋게 골인한 것이다。

白이 승리를 확실히 굳힌것은 50、52에 선착하여 하변白집을 확보한데 있었다고 하겠다。 이때 名人은 뭔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뇌며 黑53、55쪽을 끊어잡았는데 이것은 절대였다。 왜냐하면 白이 58의곳을 이은이상 黑도 서둘러 완생해놓아야 하기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黑을괴롭히는 白의수법은 완벽한 것이었고 물론黑으로서는 견딜수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白 5집반 승리

게다가 黑61이면 불가피한 보강이다。 만약 61을손빼었다가 白「가」의 치중수를 당하는 날이면 이곳黑전체가 흔들린다。

지금은 벌써 양자가다같이 승부차를 확인하고있을 터인데도 끝내기는 여전히 치열하게 계속되어간다。 그러나 역시 도전자에 비하여 名人쪽이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런데도 끝까지「해볼」생각이。 白62、64는 黑「나」에 치중하는 맛을 예방하여 기민했다。 이뒤 黑71까지 이른바 끝내기의외교였다。 그리고 黑79와 白82는 맞보기의 곳이라니 黑의패배는 움직이지 않고있는 셈이다。

이윽고 白92로서 큰 끝내기도 없어지고 나머지는 승부에 관계없는 잔끝내기뿐。 白92다음은 총보로 미루거니와 아뭏든 名人의추격은 처절한것이었다。 또 그런만큼 도전자의정확한응전에 저는 그再嘆三嘆할따름이다。【一凡】

대통령盃축구 아르헨 決勝 진출

브라질에 逆轉勝 2－1

◇GK 혼신의 방어 아르헨티나－브라질간의 준결승전。 브라질 공격진이 아르헨티나 문전까지 대시해 들어가자 아르헨티나 GK가 뛰어나오며 방어하고있다。

아르헨티나가 제11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결승에올랐다。

아르헨티나의 라싱·데·코르도바팀은 24일하오 서울운동장서벌어진 준결승전서 79년대회 우승팀인 브라질의 비토리아팀과 격전끝에 2－1로이겨 대망의결승전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전반33분께 페널티에리어 정면 외곽에서 프리킥을 허용하여 1점을먼저 뺏겼으나 40분께 로페스가 브라질 페널티에리어 정면외곽에서 총알같은 논스톱슛을 성공시켜 1－1타이를 기록한 가운데 전반을 끝냈다。

브라질의 선제골은 아르헨티나 수비진의 의표를찌른 훌륭한 작품이었다。

브라질 공격의 게터인 프란시스코는 아르헨티나선수 8명이 벽을쌓자 그들의 머리위로 포물선 킥을시도했으며 강타가터질것으로 예상했던 아르헨티나 GK라모스는 천천히 날아오는볼을 보고도 몸을움직이지 못한채 실점했다。 배구에서 연타공격으로 점수를얻는것과같은 장면이었다。 프란시스코는이날프리킥으로 선제골을 올림으로써 대회개막이래 6골을 기록, 최다득점 선수가됐다。 유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아르헨티나는 경기초반 의외로 페이스가 잘았고 주심(李偶泰)의 판정에 불복, 그들의 페이스를 잃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20분 발이 빠르고 찬스에 강한 오른쪽날개 아무·자스테키가 브라질 수비실책으로 단독 찬스를 잡아 오른쪽을 질풍같이 돌파한후 페널티에리어안에서 땅볼슛, 2－1로 전세를 뒤집었다。

◇준결승전적

아르헨티나 2 (1－1, 1－0) 1 브라질

「광부의아내」가 실린후

「편지요」하는 우체부아저씨의 목소리처럼 반가운것도 없다。

잊었던 옛친구에서 멀리 계신 친지에 이르기까지 나는 요즘 많은 편지들을 받고 있다。

얼마전 한국일보에 연재중인「아내의 삶」에서「광부의 아내」인 내 얘기가 실린후 나는 갑자기 수많은 편지들을 받게 되었다。

오늘은 멀리 미국에 계신 교포한분이 과분하신 칭찬과 함께 휴가때 쓰라고 돈까지 2백달러를 보내주셨다。

그고마우신 편지의 귀절귀절을 뿌옇게 흐려오는 시야때문에 차마다읽지못하고 가슴에 꼭안고 말았다。 가슴뭉클한 한민족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미국이란 먼나라를 이웃처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수있게 해준 정말로 따뜻한 귀한 편지와 선물이었다。

내기사가 실린후 전국에서 격려의 편지가 수없이 왔다。 『훌륭한 한국의 아내』란 과분한 칭찬도 있었고 『연탄을 아껴쓰겠다』는 어느 여고생의 깨알같은 사연도 있었으며 『광부로 취직하고 싶다』는 청년의 편지도 있었다。 오늘 또다시 우리나라도 아닌 美國으로부터 편지를 받고보니 광부의 삶은 고달파도 우리 결코 외롭지 않다는 마음이든다。 그분은 자신도 처음 이민갔을땐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 열심히 살라고 격려의 말씀을 적어주셨다。

큰 은혜를 입은 모든분들께 보답드리는 길은 모든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길뿐이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남편을 위해 새벽밥을 짓는다。

【김영순·경북문경군호계면견탄2리 태봉사택다동53외1】

무료女性법률 상담

民韓黨 부녀국서

民韓黨부녀국은 무료여성법률상담소를 개설했다。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상오 9시30분~하오6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6 백43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 3층) 민한당부녀국에서 상담을 받는다。 주로 근로여성법률상담을맡게되며, 기타사회가족등여성에관한법률상담도 맡는다。 (☎783-7661~5)

趙名人 本因坊戰 4局 有利

【나나오(七尾)24日＝宋李彬특파원】 趙治勳名人은 24일 이시까와껜(石川縣) 나나오市(七尾) 가가야(加賀屋)호텔에서 속개된 제36기 本因坊戰도전7번기 제4국에서 바둑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本因坊타이틀획득의 일보직전에 와있다。

하오5시현재 바둑은 趙名人의 우세속에 終局을향해 치닫고있는데 관전자들은 다께미야 本因坊이 돌을 던질것으로 예측하고있다。

전 LA僑民會長 李敏輝씨 金保釋

서울지법南部지원형사합의부(朴俊庸부장판사)는 23일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됐던 전LA교민회장 李敏輝씨(48)에 대한 금보석을 결정했다。

보석금은 2백만원에 주거지는 서울鍾路區梨花洞9의1 李씨의 한국주소로 제한했다。

短信

在美李창진 寫眞展

在美사진작가 李창진씨(사진)의 사진작품전이 7월19일까지 호놀룰루 유니터리언교회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李씨는 한국에서 20여년간 사진작가생활을 했으며 지난 80년에는 제18회한국사진문화상을 수상한바있는 寫壇의 중견작가。 지난해 하와이로 건너간그는「이미지·파운데이션」과「국제사진작가」회원으로 활약중。

이번사진전의 주제는 하와이를 소재로한 매직·아일랜드(Magic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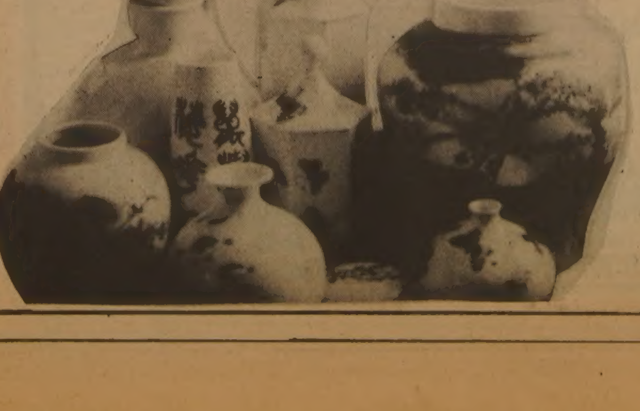
仙꽃꽂이·華枝會 美8軍서 전시회

仙꽃꽂이 會(회장 鄭仙愛)와 華枝會(회장 洪性哲)는 7월4일·5일 용산 美8軍영내에서「한국의 꽃」전시회를 갖는다。 관람객은「게이트5」로 가면 안내를 받을수있다。 문의전화 ㉞7308。

Rasan Galleries LTD.

동양의 멋이 담긴 고급가구, 앤틱,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교포 여러분께는 언제나 20% 할인 해드립니다.



* 취급품목

- 북경장미목 가구, Cabinet, Screen, Antigue가구.
- 북경 칠보공예품(Cloisonneware) 및 상아(IVORY), Jade조각품
- 각종 북경보석품(금, 은)
- 중국, 일본 골통품및 동양화
- Hand Painted Ceramic.
- 이조가구 복제품및 한국병풍

444 YONGE ST
COLLEGE PARK SHOPS
595－0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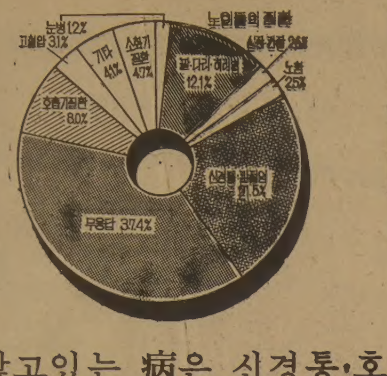
220 YONGE ST.
EATON CENTRE
"THE MEWS" 4LEVEL
593－4208

이 용 석

한국갤럽 老人문제 2차報告

가장 바라는것 疾病무료치료

우리나라 노인들은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비교적 가볍고 간단한 業種에 종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있어 노인들이 국가에 가장 바라는것은 무료치료혜택이 가장큰 희망사항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 대한 이같은 생활실태조사는 峨山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鄭周永)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朴武益)에 의뢰, 전국의 60세이상노인 1천4백27명(남자 7백31·여자 6백96)에 대한 1대1의 개별면담결과 밝혀졌는데 이조사는 노인문제에대한 峨山사회복지사업재단의 그2차보고서다. (1차보고서는 6월9일자 한국일보 1면, 6월12일자 5면 보도)



앓고있는 病은 신경통·호흡기 順
용돈 평균萬3천원…절반이 "不足"
再婚·양로원생활엔 거의가 否定的
원하는 직업 담배가게 으뜸

의 거의절반이 용돈에대한 부족감을 표시했다. 액수별로본 용돈의 퍼센티지는 5천원~1만원사이가 24.5%로 가장 많았고 1만원~2만원이 16.5%, 3천원~5천원이 15.6%, 2만원~3만원이 12.1%, 3천원이하가 11.1%, 3만원~5만원이 6.9%, 5만원이상 3.6%의 순이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돈이 충분히 생기면 가장먼저 하겠다」고 지적한것으로 「손자·자식에 보탬이 되도록하겠다」가 30.6%로 가장높아 자식들에게 강한 집착과 애정을 보이고있다. 그런데 「손자·자식에의 보탬」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번 2차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들의 취업희망직종은 담배나 소매가게가 16.3%로 으뜸이고 다음이 「앉아서 하는 일이나 집봐주기」(9.7%)며 「농사일·과수원·가축사육」이 8.1%로 3위, 「사무직」7.9%, 「부업방」4.1%, 「공원관리·청소」3.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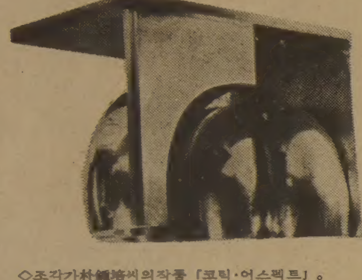
在外작가 國內展 활기

이달의 畫廊街

吳光洙 <미술평론가>

한국작가의 해외전과 해외거주 한국작가들의 국내전이 활발히 열리고 있는 최근 미술계 언저리는 전에없이 풍성한 느낌을 준다.

기술과 論理的조형의 결합 朴鍾培 조각전
時空초월…독특한 素材의식 尹明任 판화전



◇조각가朴鍾培씨의작품 「코티·어스펙트」.

원로시인 朴斗鎭교수 마지막講義

延世大서 停年퇴임맞아 3백여명 경청
自由의 追求는 민족자체 自由획득 직결

◇원로시인 朴斗鎭교수의 고별강의를 동료교수, 문인, 제자등 3백여명이 경청하고있다.

한국시단의 원로 朴斗鎭교수(65)가 24일 상오10시30분 재직중인 延世大종합관102호강의실에서 정년퇴임 기념강의를 가졌다.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㊻

博士학위심사

論文심사엄격…

信念과 인정틈서 갈등

◇61년 당시 尹潽善 대통령이 우종연구소에 들러 연구진을 격려했다.

◇미국의 입무관으로 10여년 韓하면서 우리나라 일업발전을 도와준 커컴씨(左). 그가 귀국하면서 「한국사람은 모두 머리가좋으나 모래알같아서 뭉칠줄 모르는것이 흠」이란 충고를 筆者(右)에게 남겼다.

文豪의 名言

쥘·로맹 <1885~1972>

프랑스小說家, 상·줄리앙 세토이유서 출생. 어린때와 청년시절을 파리서보내 에콜노르마르 졸업후 10년간哲學교수를지냄. 詩, 劇, 수필도 썼다.

教育은 社會를 즐기게 만든다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매표개시
본지 일간발행 기념
노래·만담의 향연
매표소 : 각식품점및 본사

두꺼비 안의섭

流星의 賦 <11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紀昌의 길 ㉓

馬山 日기업滯償 日가돌릭 支拂촉구

DOMINION SMALL WARES
스 페 샬
June 22---July 4, 1981

● Coke, Hi-C, Sprite각 10온스 Can	$ 5.99
● Flash Lights (Econolite)	2.09
● Jersey밀크 thick초코렐바(36×55¢)	12.49
Rowntree Yorkie킹싸이즈	8.49
● Twirls-Red & Black Licorice(60×5¢)	1.89
● Life-Saver Lollipop Jar(96×10¢)	6.25
● Kisko Drinks(24×30¢)	4.39
● Neilson's Will "O" Pak(Box초크렐)	1.04
● Frisbees(모든종류) 10% off Net price	
● Delsey 화장지(24×2's)	17.60
● Kleenex Facial티슈(36×200's)	30.45
● Kleenex Facial티슈(17×100's)	31.99
● 에버레디및 듀라셀 밧데리-스페샬가격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789-7214
MR. 김
DOMINION SMALL WARES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렬, 김선남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뺑킷.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각종 가죽옷 도산매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일간발행 기념

교포위문대공연!!

●최고의 인기 정상가수 총출연 ●최고의 가수진 ●최고의 캄보밴드 ●최고의 코메디안

◎일 시 : 1981년 7월3일(금) 7시30분

◎장 소 : CENTRAL TECHNICAL SCHOOL
(BATHURST & HARBORD)

◎입장권 : $ 12.00, $ 10.00

<입장권 예매처>

●본 사 ●한 국 관 ●고려식품 ●단풍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서부, 본점)

주최 : 한국일보사